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7年 8月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論文

文末表現「のだ」에 關한 研究

- 意味와 機能 分析을 中心으로 -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栽 穎

文末表現「のだ」에 관한 研究

- 意味와 機能 分析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Sentence-end Expression "Noda"

- Mainly the Analysis of Meaning and Function -

2007 年 8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栽 穎

文末表現「のだ」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朴 青 國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日語教育)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7 年 4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金 栽 穎

金栽穎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朝鮮大學校 教授 金 仁 炫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朴 青 國 印

審査委員 朝鮮大學校 教授 丁 意 祥 印

2007 年 6 月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目 次

ABSTRACT	ii
第1章 序 論	1
第2章 「のだ」의 意味特性 및 使用条件	3
2.1. 先行研究	3
2.2. 承前性	8
2.3. 既定性	10
2.4. 披瀝性	12
2.5. 对比性	14
第3章 「のだ」의 機能	18
3.1. 스킵프의 「のだ」	18
3.1.1. 名詞文과 对比性	21
3.1.2. 否定文에서의 스킵프의 「のだ」	23
3.1.3. 疑問文에서의 스킵프의 「のだ」	27
3.1.4. 肯定文에서의 스킵프의 「のだ」	30
3.2. 모달리티의 「のだ」	33
3.2.1. 对事的 모달리티의 「のだ」	37
3.2.1.1. 関連性の 「のだ」	38
3.2.1.2. 非関連性の 「のだ」	42
3.2.2. 对人的 모달리티의 「のだ」	45
3.2.2.1. 関連性の 「のだ」	47
3.2.2.2. 非関連性の 「のだ」	49
第4章 結 論	53
参考文献	56

ABSTRACT

A Study on the Sentence-end Expression "Noda" -Mainly the Analysis of Meaning and Function-

Kim Jae-young

Advisor : Prof. Park Chung-guk Ph.D.

Major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のだ」 is one of the sentence-end expressions frequently used in modern Japanese. The sentence including 「のだ」 has a feature of nominalization, which is converted into a Japanese auxiliary verb connected formal noun 「の」 with 「だ」.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rasp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のだ」 is that 「のだ」 is to be changed into the parallel form of noun sentence.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のだ」's meanings and conditions for use related with them, and the function of 「のだ」 is divided into Scope and Morality.

Before anything else, the conditions for use ar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 meaningful features into continuance, completed decision, emphasis and contrast.

First, The sentences including 「のだ」 can be connected with linguistic contexts and non-linguistic situation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use when you verbalize unexpected situations. That is the continuance of 「のだ」.

Second, 「completed Decision」 means it can be judged that propositions presented by 「のだ」 by the speakers are already completed. It includes situations not only realistic but not realistic.

Third, the 「のだ」 sentences appeal to persons to listen to their utterances positively and catch the drift. So, it seem to be confessional and appealing. These characteristics are called the emphasis of 「のだ」.

Fourth, 「のだ」 is usually used if one possibility comes into question with another separately. 「A certain proposition is exactly Q」 says it is Q , not Q' or Q". This is the contrast of 「のだ」.

The function of 「のだ」 in this paper is divided into Scope's 「のだ」 using 「のだ」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nominalization, and Modality's 「のだ」 meaning 「explanation」 and so forth, by nominalizing and presenting the fore part of 「の」.

When we use Scope's 「のだ」, the 「のだ」 sentences come to have the characteristics of noun sentences by changing the form of verb sentences into noun sentences. Consequently, Scope's 「のだ」 is necessary to nominalize the fore part and is used to focus on speaker's intentions. It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noun sentences in that they center on the part of contrast and nominalization.

Only Scope's 「のだ」 takes the negative form, 「のではない」, and Scope's 「のだ」 and Modality's 「のだ」 follow their own functions in interrogative sentences. Like this, Scope's 「のだ」 is mainly used in neg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but occasionally positive sentences.

Modality's 「のだ」 expresses completed events by changing sentences to the similar form of noun sentences, and shows speaker's mental attitudes. Depending on being of listeners, it is divided into Personal Modality and Event's Modality and it is also subdivided into relevance and non-relevance of 「のだ」 connecting preceding context

and situation(P) with aspect(Q). 「のだ」's relevance is used to grasp or present Q as a reason·meaning of preceding context or situation(P). 「のだ」's non-relevance is used to do only if Q is regarded as completed events without situation(P).

The usage on Event's Modality,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detection」 was investigated by the relation between P and Q , and the usage 「exclamation」 「reperception」 「resolution」 by the non-relation , whereas the usage on Personal Modality, 「explanation」 「prediction」 「expressing an idea in a different way」 was viewed by the relation, and the usage 「order」 「confession」 「emphasis」 by the non-relation.

In this paper, 「のだ」 was confined to the sentence-end expressions in the aspect of semantic features and conditions for use, and was put Scope and Morality into shape in the aspect of function.

「のだ」 is used in the end of sentences 「のでなく(て)」 「ので」 「のであれば」 「のでは」 「のだから」 「の(だろ)か、 ……」 etc, and is also used in the middle of sentences. Diverse patterns of 「のだ」 used in those subordinate clauses will be discussed hereafter.

第1章 序 論

「のだ」는 日本語 文章이나 談話에서 가장 頻繁하게 사용되는 文末表現의 하나이다. 「のだ」에 관해서는 많은 先行研究와 함께 形態面, 通辭面 그리고 機能面에 이르기까지 多様な 角度에서 接近이 이루어져 왔다. 많은 研究者의 關心을 끄는 最大の 理由는 多様な 言語形式을 分析할 때 「のだ」의 有無에 따른 差異가 問題가 되고, 文의 分類, 否定이나 疑問 등의 스킵프와 焦点, 談話分析이라는 큰 問題와 깊이 關連되기 때문이다. 本質만으로는 充分히 說明할 수 없을 만큼 그 意味와 機能의 擴張性을 갖는다. 또한 日本語를 母國語로 하지 않는 學習者에게 習得이 어려운 形式이라는 點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のだ」의 典型的인 用法은 어떤 狀況이나 先行文脈을 받아, 그것이 成立되는 事情이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說明하는 것으로¹⁾ 모달리티 形式의 文末表現으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注目할 만한 事實은 「のだ」가 항상 說明을 나타내는 모달리티 機能만을 갖는가 하는 點이다. 다음 例文(1)은 狀況이나 先行文脈에 따라 다르게 解釋될 수 있다.²⁾

- (1) 頭が痛いんだ.
- (2) お腹が痛いんじゃない。頭が痛いんだ。
- (3) 静かにしろ。頭が痛いんだ。

위의 例文(2)와 같은 文脈이라면 「のだ」는 「頭が」를 焦点으로 하는 스킵프 機能을 하고 있고, 名詞文과 같은 對比性을 갖는다. 例文(3)과 같은 경우에는 「静かにしろ」라는 命令을 내리는 理由를 「頭が痛い」로 提示하는 모달리티 機能의 「のだ」用法이다. 例文(3)의 「のだ」文에는 아픈 곳이 「お腹」

1) 日本語教育学会編(2005) 『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146

2)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108

가 아닌 「頭」라든지, 조용히 해주길 바라는 理由로 「めまいがする」가 아닌 「頭が痛い」라는 등의 例文(2)와 같은 對比性은 없다.

寺村秀夫(1984)³⁾는 「PハQノダ」라는 文型은 基本的으로 典型的인 題述文인 「XハYダ」文型과 同一한 것으로 보아도 좋다. 特殊한 것은 그 Y部分이 普通은 名詞로 나타나는 概念인데 비해, Q는 「節」내지는 「動詞」「形容詞」또는 「名詞+ダ」形態의 述語用言으로 나타나는 内容이라는 点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のだ」를 隨伴하는 文의 構造는 어떤 主題에 대해 解説이 附加되는 名詞文的인 性質을 지니는 特性이 있다. 「のだ」는 文의 構造自体를 名詞文에 準하는 形式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点에서 「のだ」의 重要性이 있다. 그러나 名詞文과 반드시 同一하지 않다는 点이 또한 「のだ」의 難解한 特性이기도 하다.

最近의 先行研究는 文法的으로는 「のだ」의 機能을 糾明하는 데는 어느 정도 成果를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用法에 대해 一律적으로 說明하기 어렵기 때문에 非母語話者의 경우, 從來의 說明이나 強調 등 單純한 認識으로 인해 잘못 使用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이러한 点에 着眼하여 本 論文에서는 意味와 機能이 매우 多様하여 쉽게 習得하기 어려운 表現으로 간주되고 있는 「のだ」를 対象으로, 그 意味的 特性과 機能을 詳細히 分析하여, 非母語話者가 그 用法을 容易하게 理解하여 活用할 수 있도록 体系的으로 整理하고자 한다. 이를 土台로 「のだ」의 機能을 스코프의 「のだ」와 모달리티의 「のだ」로 分類하여 各各의 機能的인 特性과 意味를 나뉠대로 提示해보고자 한다.

考察의 対象은 文末表現으로서의 「のだ」로 限定한다. 아울러 研究対象 範圍는 「のだ」의 變形形態인 「のである」「のです」「んだ」「んです」등과 否定形態 「のではない」「んじゃない」, 疑問形態 「のか」「のですか」「んですか」, 推量形態 「のだらう」까지 包含하기로 한다.

3)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307

第2章 「のだ」의 意味特性 및 使用条件

2.1. 先行研究

「のだ」의 品詞上의 位置에 관한 研究는 「の」에 「だ」가 接續된 것으로 보는 見解와, 「の」와 「だ」가 하나로 結合된 助動詞로 간주하는 두 가지 見解가 有力하다. 이러한 「のだ」에 대한 立場은 크게 보면 名詞化의 機能을 지닌 連体助詞 「の」에 「だ」가 結合되어 一語化된 것으로 見解가 一致되어 가고 있다.

먼저 「のだ」를 「の」+ 「だ」의 構成으로 보는 立場은 準体助詞 「の」의 機能을 重視한 것이다. 橋本の 說明에 의하면 準体助詞 「の」란 다른 낱말에 붙어 어떤 意味를 付加하여 그 全体가 体言과 같은 機能을 갖게 하는 것으로 準体助詞라고 命名한다」라고 하였다.⁴⁾

그리고 佐治圭三(1991)는 橋本進吉의 準体助詞 「の」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分類하고 있다.⁵⁾

- (1) 格助詞 (下の体言の省略) : 私のは机の上にあります。
- (2) 準代名助詞 : 私が買ったのは辞書です。
- (3) 狹義의 準体助詞 : 私が辞書を買ったのを知っていますか。

佐治圭三는 狹義의 準体助詞란 「具體적인 意味를 갖지 못하나, 形態만 体言의 形式을 갖추어 先行表現의 修飾을 받는 機能을 지닌 것」으로 보고, 이 狹義의 準体助詞 「の」에 「だ」를 뒤에 接續한 것이 「の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敷衍하면 「の」는 具體적인 意味없이 先行節과 判斷要素를 連結하는 役割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橋本進吉(1934) 『国語法要説』 明治書院 (『国語法研究』 岩波書店 1948年 所収 p.62)

5) 佐治圭三(1991) 『日本語の文法の研究』 ひつじ書房 p.192

이러한 「の」의 役割을 重視한 것이 스킵(スコープ)의 「のだ」에 관한 研究이다. 그리고 「のだ」를 하나의 表現으로 간주하는 論理的 根拠로 三上章(1972)⁶⁾의 「ガノ可變」을 들 수 있다. 다음 用例를 살펴보자.

- (4) 雨ガ降ル + 晩 ⇒ 雨ノ降ル晩
- (5) 篇理ガ到着シタノヲ知ッテイルカ
⇒ 篇理ノ到着シタノヲ知ッテイルカ
- (6) 篇理ガ到着シタノデス
⇒ * 篇理ノ到着シタノデス

上記의 用例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三上章은 名詞의 重要な 性格인 「ガノ可變」, 즉 修飾語句中の 主格의 格助詞 「ガ」를 「ノ」로 바꿀 수 있는 性質을 「のだ」가 잃고 있다는 点을 指摘하고 있다. 즉 例文(5)의 「篇理ガ」는 「篇理ノ」로 바꿀 수 있지만, 例文(6)의 「篇理ガ」는 「篇理ノ」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のだ」의 「の」는 分離하여 생각할 수 없는, 「のだ」 하나의 形態로 助動詞化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本 論文에서도 「のだ」는 準体助詞 「の」에 「だ」가 結合되어 一語化된 助動詞로 간주하기로 한다. 아울러 野田春美(1997)⁷⁾가 主張하는 바와 같이 一語化되어 있지만 「の」와 「だ」라는 하는 두 成分의 機能的 特性을 表出하는 「のだ」와 一語化하여 變質된 이른바 「説明」이라고 불리는 모달리티的 機能을 担当하는 「のだ」가 있다는 主張을 收用하여, 本 論文에서도 이 學說에 따라 考察을 展開해 나가고자 한다.

「のだ」의 本質과 基本的 機能에 대해서도 많은 先行研究가 있다. 三上章,

6) 三上 章(1972) 『現代語法序說』 くらしお出版 pp.27~28

7) 野田春美(1997) 『「のだ」의 機能』 くらしお出版 p.13

林大, 佐治圭三 등의 研究를 簡單하게 整理하면 「のだ」의 本質은 「の」에 의해 名詞化되는 部分을 이미 成立된 事態로 보고 거기에 「だ」를 덧붙인 것으로 보는 点이 共通된 視覺이다.

三上章(1972)는 「連体部分 「何々スル」를 既成命題로 하고, 거기에 話者의 主觀的 責任의 準体部分 「ノデアル」를 덧붙여 提出하는 것이 反省時의 根本的인 意味일 것이다」라고 定義하고, 「反省時의 의한 解説은 文脈의 解決을 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場面을 前提로 使用되어진다. 다시말해 前文과 關係的인 構造를 갖는다」라고 說明하고 있다.⁸⁾

佐治圭三(1986)는 「のだ」의 「の」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の」の前の述語の表わす内容、およびその述語がまとめあげる種々の成分と述語によって描かれることがらを客体的に固定化するものである。そのことによつて、話し手の主観から離れたところで成立していることがらとして提出することになり、そこに、まわりの状況、前文、先行文脈とのかかわりが生じるのであろう。⁹⁾

佐治圭三의 「客体的に固定化する」라는 것은 三上章의 「連体部分을 既成命題로 만든다」라는 指摘과 같은 것이다.

한편 田野村忠温(1990)¹⁰⁾는 「βのだ」는 α를 받아서 그 背後의 事情이나 実情을 나타내는 것이 基本的 機能이라고 하고, 그 意味特性과 使用条件으로 既定性、承前性、披瀝性、特立性를 들고 있다.

三上章와 佐治圭三은 「の」의 앞 部分에서 表現되는 事態를 既定의 事实로 把握하는 것을 「のだ」의 重要的 特性으로 보고 있다. 「既定性」이라는 概

8) 三上 章(1972) 『現代語法序說』くろしお出版 p.241에서 「何々スル、シタ」를 單純時, 「何々スル、シタ+ノデアル、アッタ」를 反省時라고 부르고, 單純時は 報告이며 独立的인데 비해 反省時は 解説이며 關係的이라고 論하고 있다.

9) 佐治圭三(1986) 「「~のだ」의 再說(續)-山口佳也氏・金榮一氏に答えて-」 『日語學習与研究』 35 對外經濟貿易大學 (『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1991年 所収)

10) 田野村忠温(1990)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의 意味と用法』和泉書院

念에 대해서는 本章에서 具体的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のだ」의 機能을 統合된 하나의 表現으로 보는 視覺 外에 다른 한편에서는 스킵의 「のだ」와 모달리티의 「のだ」로 分類하는 立場도 있다.

久野 暉(1973)¹¹⁾는 「否定・疑問のスコープ」에 관한 「のだ」의 機能을 提示하였고, 野田春美(1997)가 「のだ」의 機能을 무드를 나타내는 機能과 스킵을 나타내는 機能으로 分類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機能을 重視하는 「のだ」에 관한 研究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三尾砂(1948)¹²⁾는 「のだ」文은 「轉位文일 경우와 分節文일 경우가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예를 들어 下記의 例文(7)이 「雪が降っているのではない、雨だ」라는 意味일 때는 例文(8)이 轉位된 「轉位判断文」이 되고, 「あの音は？」라는 質問에 대한 對答이라면, 例文(7)은 例文(9)의 述部に 해당되는 이른바 「分節文」의 構造가 되는 것이다.

(7) 雨が降ってるのだ。(轉位判断文)

(8) 降ってるのは雨だ。

(9) あの音は、雨が降ってるのだ。(分節文)

三上章(1953)¹³⁾는 다음의 (11)과 같은 「のだ」文에 대해 「넓은 意味로는 解説이지만, 成分이 극히 局限되어 있는 경우에는 「指定」이라고 하는 편이 보다 確實하다」고 말하고 있다.

(10) 何ダカザワザワシテルヤウダネ?

— 篇理ガ到着シタンデス (解説)

11) 久野 暉(1973) 『日本文法究』大修館書店

12) 三尾 砂(1948) 『國語法文章論』三省堂 pp.100~101

13) 三上 章(1972) 『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p.243

(11) 誰ガ到着シタッテ?

— 篇理ガ到着シタンデス (指定)

三上章가 말하는 「指定文」은 三尾砂의 「轉位判断文」과 같은 것이다. 文中에 있는 成分을 「指定」한다는 「のだ」의 機能은 久野暲가 否定 등의 「스코프」라는 視点에서 考察한 「のだ」의 機能과 共通된 点이라고 할 수 있다.

益岡隆志(1991)¹⁴는 「のだ」에 의한 說明을 「背景說明」「帰結說明」「叙述樣式判断の說明」세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背景說明」「帰結說明」이라는 것은 從來의 「說明」이라고 불리던 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叙述樣式判断の說明」의 「のだ」란 從來 否定과 疑問의 스코프의 問題로 다루어져 온 (13)과 같은 例文의 「のだ」를 말한다.

(12) 選手達は泣いていない。(存在判断型)

(13) 選手達は泣いているのではない。(叙述樣式判断型)

上記의 例文(12)와 (13)의 差異에 대해서 例文(12)는 事態의 存在・非存在를 問題로 삼는 「存在判断型」文이며, 例文(13)은 事態의 存在를 前提下에 事態의 叙述方式을 問題로 삼는 「叙述樣式判断型」文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野田春美(1997)¹⁵는 以上の 先行研究를 크게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のだ」의 機能을 「스코프의のだ」와 「ムード의のだ」로 分類하고 있다.

스코프의 「のだ」	ムード의 「のだ」
三尾砂의 「轉位の判断文」	三尾砂의 「文節文」
三上章의 「指定」	三上章의 「解説」
益岡隆志의 「叙述樣式判断型の說明」	益岡隆志의 「背景說明・帰結說明」

14) 益岡隆志(1991) 『モダリてィの文法』 くろしお出版 p.64

15)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p.20

以上에서 살펴본 여러 先行研究의 内容を 整理해 보면 一般的으로 「のだ」는 一語化된 것으로 보고 그 意味와 用法 등을 追求하는 視覚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스코프의 問題로 「の」의 機能이 強調되는 研究 視覚이 竝存하고 있다.

「のだ」의 두가지 機能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のだ」의 本質을 把握하고 多様な 機能과 用法을 明確하게 分類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機能을 모두 認定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以上の 先行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のだ」의 機能을 스코프의 「のだ」와 모달리티의 「のだ」로 分類하고 兩者의 差異点에 立脚하여 각각의 機能을 考察하고자 한다.

2.2. 承前性

本 論文에서는 意味特性 및 使用条件을 承前性, 既定性, 披瀝性, 對比性으로 分類하여 살펴본다. 考察의 便宜上 「のだ」文의 基本形式을 「PはQのだ」로 定한다. P는 先行文이나 狀況을 나타내고 Q는 「のだ」를 包含한 文이다.

田野村忠温(2002)¹⁶⁾는 例文(14)의 「のだ」文을 例文(15)와 같은 構造로 說明하고 있다.

(14) 雨が降ったのだ。

(15) 地面が濡れているのは(=主題)、雨が降ったのだ(=解説)。

上記의 例文(15)는 名詞를 述語로 하는 主題-解説型의 文인 「~は~だ」의 解説에 해당하는 位置에 述語를 中心으로 하는 「雨が降った」라는 表現이 使用된 것이다. 「雨が降ったのだ」라는 文의 背後에는 具體的인 言語로는 表現되지 않더라도 「~は」라는 主題가 항상 内在해 있다.

16) 田野村忠温(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書院(復刊) p.1

이와 같이 背後에 存在하는 問題意識은 問題의 発端이 될 만한 事態가 있어야 可能하다. 「のだ」文은 言語的인 文脈으로 나타난 事態나 非言語的인 狀況을 받아서 発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突発적으로 發生한 事態를 言語化하는 경우에는 使用할 수 없다. 이것을 「のだ」의 「承前性」이라고 한다.

(16) あっ、{動いた / ?動いたんだ}。

(17) あっ、生きて{いる / いるんだ}。

例文(16)의 경우 뱀의 움직임을 認識하고 그 자리에서 発話하는 것이기 때문에 「動いたんだ」는 不適切하다. 그러나 例文(17)의 경우 뱀이 살아있다는 것은 뱀이 움직였다는 背後의 事實이 存在한다. 例文(17)은 例文(16)에 비해 뱀의 움직임에서 뱀이 살아 있다는 認識에 이르기까지 한 段階의 推論이 介在된다. 따라서 「生きているんだ」가 可能하다. 단, 「のだ」를 使用하지 않은 「生きている」도 可能한데, 이것은 上述했듯이 推論이 介入되지 않아도 즉시 알 수 있는 事態를 表現한 것이다.

先行文(P)이 言語적으로 表現되는 것은 前後의 文이 指示語나 接統詞로 連結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指示語의 使用으로 前文의 内容を 後文에 連結하거나 接統詞의 使用으로 前文과 特定の 關係로 묶는다. 例文(18)의 「のだ」를 除去한 例文(18)'에서 두 개의 文을 関連짓기 위해서는 ()안에 「なぜなら」 등의 接統詞를 使用해야 한다. 接統詞가 주로 文頭에서 앞 文과 関連짓는 機能을 하는 것에 비해, 「のだ」는 그와 같은 機能을 文末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7)

(18) [二、三歩進んだとき、背中に衝撃を感じ、学は思わず振り向いた。]

17) 方村恒雄(1980) 「『のである』の用法」 『解釈』第26巻 第1号 p.38

[雪がグラブを投げつけたのだ。]

(18)' [二、三歩進んだとき、背中に衝撃を感じ、学は思わず振り向いた。]

[(なぜなら) 雪がグラブを投げつけた]

P가 先行文 대신 非言語的인 狀況으로 提示되는 경우도 있다.

(19) (汗をかいている人に対して) 暑いんですか?

(20) (つくしがはえているのを見て) もう春なんだなあ。

例文(19)에서의 狀況(P)은 相対가 咄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고, 例文(20)에서 는 꽃이 피어있는 것이다. P는 言語的인 文脈으로는 表現되어 있지 않지만, 会話 狀況에 있어서는 이미 成立된 事態라고 할 수 있다.

2.3. 既定性

「既定性」이라는 것은 「のだ」에 의해 提示된 命題가 이미 成立되어 있다고 判断되는 性質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承前性이 P를 重視하고 있다면 既定性은 Q를 重視하는 것이다.

田野村忠温(2002)¹⁸는 「のだ」의 意味特性의 하나로 이러한 「既定性」을 들고 있다. 「のだ」가 使用되는 Q는 이미 成立된 事態이고, 「のだ」文은 이러한 事態에 대해서 先行文이나 狀況과 관련하여 「背後에 있는 事情」을 表現하는 것이다. 단, 既定性은 表現되는 事態가 반드시 實際로 成立한 事實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라는 点을 指摘하고 있다.

(21) 太郎は合格すると思う? - きっと {合格する / ?合格するんだ}

(22) あっ、財布がない。(キット) 電車の中ですられたんだ。

18) 田野村忠温(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書院(復刊) p.10

例文(21)에서 「のだ」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試験의 結果가 事前に 決定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例文(22)의 「電車の中でした」는 實際의 事實로서 認定되는 것은 아니다. 話者の 認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 真相이 이미 決定되어 있는 것이며, 그 可能性으로 「電車の中でした」라고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特性은 「Qのだ」의 Q가 반드시 事實만을 意味한 것이 아니라 点에서 例文(23)과 (24)의 Q는 單純히 話者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認定된 眞実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특히, 具體的 事項(P)을 받지 않는 「Qのだ」形式에서 이러한 既定性이 강하게 나타난다.

(23) おまえにそんなことを言う資格はないんだ.

(24) そういう思い上がりは人間をだめにするのです.

이와 같은 「のだ」의 「の」의 特性이 先行文이나 狀況을 客觀적으로 認定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關連하여 例文(25)의 主体가 一人称에 限定된 感情形容詞가 「のだ」를 隨伴한 경우에는 例文(27)과 같이 三人称을 主体로 하는 현상이 可能해진다. 19)

(25) 私はうれしい。

(26) *あの人はうれしい。

(27) あの人は(きっと)うれしいんだ。

「うれしい」와 같은 感情形容詞는 그 形態 그대로 述語가 되면 發話時의 感情을 나타내기 때문에 平叙文에서의 主語는 一人称에 限定된다. 그러나 「のだ」와 接續하면 Q가 發話時 以前에 이미 決定된 事態로 把握되기 때문에

19)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65

「うれしい」라는 感情의 主体가 三人称이라도 自然스러워지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だろう」文과 「のだろう」文을 比較해 보면 既定性에 대한 説明이 明確해진다.

(28) 虫はどこから入って来るだろう。

(28)' 虫はどこから入って来るんだらう。

(29) 君も行くだろう？

(29)' 君も行くんだらう？

上記의 例文(28)의 「来るだろう」는 앞으로 벌레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狀況에서 使用되고 있다. 아직 實現되지 않은 事態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例文(28)'의 「来るんだらう」는 벌레의 침입이 實際로 發生한 狀況에서 벌레의 侵入 場所가 어디인지 話者の 疑心을 表現하고 있는 것이다.

例文(29)의 「行くだろう？」는 話者の 推量을 相對가 確認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相對의 意志와는 상관없이 갈 것이라고 믿고 表現함으로써 結果적으로 勸誘를 나타내게 된다. 이에 비해 例文(29)'의 「行くんだらう？」는 「何をぐずぐずしているんだ。行くと言ったじゃないか」라는 ニュアンス의 表現 등이 이어지는 경우이다. 가는 것은 이미 決定된 것으로 보고 그 實情을 問題 삼는 것이다.

2.4. 披瀝性

「のだ」는 相對가 모르거나 쉽게 알 수 없는 種類의 事項을 表現하는 文에 자주 使用된다. 또한 話者 自身の 心情이나 個人的인 事情을 表現하는 경우에도 자주 使用된다. 이러한 「のだ」의 性質을 「披瀝性」이라고 한다. 例文

(30)의 「本当に」, 例文(31)의 「大切なのは」, 例文(32)의 「ほんとは」, 例文(33)의 「実は」와 같은 表現을 내세우고 文末에 「のだ」를 誘導하는 形態를 취하여 있다. 이처럼 「のだ」文은 相対가 들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積極的인 表現이 된다. 그래서 告白이나 呼訴하는 듯한 語調를 느끼게 한다.

(30) 本当に私は知らないんです。

(31) 大切なのは作品に接する時の気持ちだと思うんです。

(32) あたしほんとは好きなんだ、野球部の太田君。

(33) 実は、私にも同じような経験があるんです。

「のだ」를 隨伴한 疑問文은 相対에게 묻지 않으면 알기 힘든 事項을 質問한다고 하는 印象을 준다. 質問者도 쉽게 答을 알 수 있는 事項을 質問할 때는 「のだ」使用은 不自然스럽다. 따라서 相対도 쉽게 알 수 있는 内容에 대해 答할 때는 「のだ」는 그다지 使用되지 않는다.

(34) A:あなたは何座ですか?

B:わたしは {双子座です / 双子座なんです}。

(35) A:きょうは何曜日ですか?

B:きょうは {水曜日です / ?水曜日なんです}。

(36) お生まれは {どちらですか / どちらなんですか}?

(37) きょうは {何曜日ですか / ?何曜日なんですか}?

例文(34)와 (35) 모두 質問者가 모르는 事項에 대해서 答하고 있지만, 그 内容의 性格은 다르다. 즉 他人의 生日은 相対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지만, 曜日は 약간의 努力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事項이다. 그래서 例文(34)의 「のだ」는 自然스럽지만, 例文(35)의 「のだ」는 不自然스러운 것이다. 例文(36)은 他人의 出生地는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のだ」를

利用해서 물을 수가 있다. 그러나 例文(37)과 같이 曜日は 普通の 狀況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のだ」를 使用하는 것은 不自然스러운 것이다.

推量確認要求인 「だろう」는 相對의 内心이나 個人的인 事情 등 話者が 쉽게 알 수 없는 事項에 대해서 推量하고, 그 確認을 相對에게 要求하는 경우에 例文(38)~(40)과 같이 「のだ」를 使用한다.

(38) 疲れているんでしょう? もう寝なさい。

(39) 分かったよ。片付けりゃいいんだろう?

(40) ちょっと、私の話聞いてるんでしょうね。

또한 單純推量の 「だろう」가 「のだろう」形態로 使用되는 경우에도 例文(41), (42)와 같이 話者と 相對 모두가 쉽게 알 수 없는 事項에 대해 表現되는 경우가 많다.

(41) そのころの人々の生活は、さぞ大変だったんでしょうね。

(42) ともかく、誰か、そういうことを考え始めたやつがいたんだろう。

2.5. 對比性

「のだ」는 하나의 可能性을 다른 可能性과 區別하여 問題化하는 경우에 特徴적으로 使用된다. 「어떤 命題에 대해 그것은 바로 Q이다」라고 表現할 때, 그것은 Q이지 Q'나 Q''가 아니라는 것을 含意하는 것이다. 이것을 「のだ」의 「對比性」이라고 한다. 이 對比性은 「のではない」를 隨伴하는 否定文에서 특히 강한 効果를 發揮한다. 「のではない」에서 拒絶되는 Q를 代身할 만한 Q'의 存在가 반드시 予定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例文(43)과 같은

對話에서 돈의 紛失에 대한 自身の 關與를 全面的으로 否定하고자 할 때에는 「盗んだんじゃない」라고 对答할 수 없다. 「盗んだんじゃないよ」라는 发言 自体는 可能하지만, 돈이 없어진 것에 对한 自身の 關與를 完全히 否定한 것이 아니다. 훔친 것이 아니라 「誰かに命じられて預かっただけだ」라고 하는 다른 命題 Q가 背後에 存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43) 「おまえ、あの金を盗んだらう。」

「盗んだんじゃないよ。」

下記의 例文(44)는 아이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한 것은 本人의 希望에 의한 것이고 父母가 強制로 배우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例文(45)는 땅이 젖어 있는 理由가 單純히 降雨인지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그 原因을 여러 가지로 想定하고 그 중에서 降雨가 原因인지를 묻는 形式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对比性은 否定文에서 特히 자주 使用된다. 例文(46)은 降雨가 原因이라는 것을 否定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雨が降ったのではなく、私が水を撒いたのだ」등 降雨와는 다른 實際의 原因이 存在함을 内包하고 있다.

(44) 子供がどうしてもピアノを習わせてくれと言ったんです。

(45) (濡れた地面を見て) 雨が降ったんですか。

(46) 雨が降った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

对比性과 關連해서 例文(47), (48)과 같이 어떤 사항을 前提하고 그 原因이나 理由를 想定할 수 있는 새로운 事態로 叙述할 경우나, 例文(49), (50)과 같이 目的 등을 새롭게 表現하기 위해서도 「のだ」가 必要한다. 다만, 对比性을 문제로 하지 않는 狀況이라면 「のだ」를 반드시 必要로 하지는 않는다.

20) 田野村忠温(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書院(復刊) p.84

- (47) (失敗を悔やんで) 君がよけいなことを言うから失敗したんだ。
 (48) 仕事に慣れたからと言って気をゆるめるからこんなミスをするんだ。
 (49) やつをリングに沈めてやるためにボクシングを始めたんだ。
 (50) みんなの気を引こうとしてあんないたずらをしているんだ。

野田春美(1997)²¹⁾는 「のだ」가 對比性を 갖는 것은 「のだ」文의 構造가 準体助詞 「の」에 接続되는 部分을 名詞化하는 機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説明하고 있다.

- (51) 私は一年生じゃない。二年生だ。
 (52) *私は一年生じゃない。何でもない。
 (53) 彼は泣かなかった。大声で笑った。
 (54) 彼は泣かなかった。全く表情を変えなかった。

「xはyではない」라는 名詞文의 否定形態는 x는 y와 対立하는 다른 特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例文(51)은 適切な 文이지만 例文(52)는 不自然스럽다. 例文(53), (54)의 「彼は泣かなかった」라는 動詞文의 경우 「彼は泣いた」라는 事態의 成立이 否定되고 있을 뿐이다. 動詞文의 否定에서는 다른 事態의 成立에 対한 含意이 없기 때문에 例文(53)과 (54)도 自然스럽다.

이와 같은 名詞文의 對比的인 性質은 動詞文에서는 例文(55)와 같이 「のだ」를 통해서 對立하는 事態가 成立한다는 對比性を 含意하게 된다. 특히, 否定文에서는 이러한 對比性이 확연히 나타난다. 「のではない」의 의한 否定은 對立하는 事態의 成立을 含意하기 때문에 例文(56)은 不自然스러운 文이 된다.

21) 野田春美(1997) 『「のだ」の機能』くろしお出版 p.45

(55) 木村さんに会ったのではない。森さんに会ったのだ。

(56) ??木村さんに会ったのではない。結局誰にも会わなかった。

以上에서 「のだ」의 意味적인 特徴과 그 使用条件으로 承前性, 既定性, 披瀝性, 对比性으로 分類하여 考察해 보았다. 「のだ」文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多様な 意味적인 特性은 다음 章에서 考察할 「のだ」의 두가지 機能을 分類함에 있어 매우 重要하다. 承前性은 「のだ」가 先行文이나 狀況과의 關連性에서 그 意味를 찾을 수 있으며, 既定性은 表現된 事態가 實際로 成立된 事實나 이미 決定된 하나의 可能性으로 想定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披瀝性은 相對에게 告白이나 呼訴하는 듯한 語調를 느끼게 한다. 对比性은 文의 構造를 名詞文化하고 特히 否定文에서 잘 나타나는 性質임을 考察하였다.

第3章 「のだ」의 機能

本章에서는 「のだ」의 機能을 構文的인 理由에서 名詞化할 必要에 의해 「のだ」를 使用하는 경우와 「の」와 接續하는 部分을 名詞化함으로써 說明 등의 意味를 갖게 하는 경우로 分類한다. 즉, 「のだ」의 機能을 스크프의 「のだ」와 모달리티의 「のだ」로 分類하고 兩者의 差異점에 立脚하여 각각의 機能과 用法을 考察한다.

3.1. 스크프(スコープ)의 「のだ」

스크프의 「のだ」는 어떤 文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스크프의 「のだ」에 대한 必要性和 使用条件에 대해 알아본다. 스크프의 「のだ」가 使用된 例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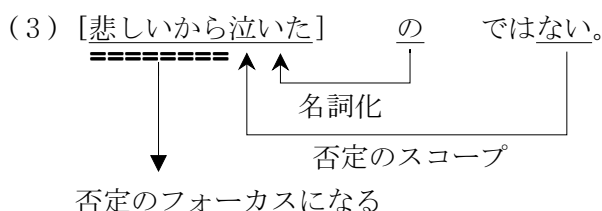
- (1)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いたんじゃないのよ」
「……」
「嬉しくて泣いたのよ。」
- (2) *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かなかったのよ」

「のだ」를 使用한 上기 例文(1)에서 「のだ」를 除去하면 例文(2)와 같이 話者が 「泣いた」라는 事實 자체를 否定하는 文이 되어 버린다. 反面, 「のだ」를 使用한 (1)에서는 話者が 「泣いた」라는 事實은 成立한 狀況이며, 그 理由가 「悲しいから」가 아닌 다른 理由의 存在가 「のだ」에 의해 나타나 있다. 즉, 「のだ」의 使用 與否에 의해 文의 어느 部分이 否定되는지가 달라진다.

野田春美(1997)²²⁾는 例文(3)과 같이 「悲しいから泣いた」라는 部分이 「の」에 의해 名詞化되고, 否定의 스크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안의

22) 野田春美 (1997) 『「のだ」의 機能』くろしお出版 pp.32-33

「悲しいから」라는 부분이 부정의 焦点(フォーカス)이 된다. 前接하는 部分을 名詞化하기 위해 必須인 「のだ」를 스코프(스코프)의 「のだ」라고 説明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도 이러한 「のだ」를 스코프의 「のだ」로 부르기로 한다. 또한 文의 어느 部分이 否定되는가를 問題化할 때, 否定의 作用이 미치는 範圍를 「스코프」라고 하고, 그 作用을 集中的으로 받는 部分을 「焦点」으로 부르기로 한다.

益岡隆志(1991)²³⁾는 「のだ」와 関連하여 다음과 같은 文으로 스코프의 「のだ」의 機能에 대해 説明하고 있다.

(4) 選手達は泣いていない。

(5) 選手達は泣いているのではない。

例文(4)는 事態의 存在 與否에 대해서 判断하는 「存在判断型」文이고, 例文(5)는 事態의 叙述様式の 適切性 與否에 대해서 判断하는 「叙述様式判断文」文이다. 스코프의 「のだ」가 없는 例文(4)에서 否定의 焦点이 되는 것은 事態의 成立이다. 이에 반해 스코프의 「のだ」를 使用한 例文(5)에서는 選手들에게 어떤 事態가 成立되어 있음을 前提하고, 「泣いている」라는 部分이 否定의 焦点이 되고 있다.

23) 益岡隆志 (1991) 『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p.64

이와 같이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を 焦点으로 할 때는 스킵의 「のだ」가 必要하다. 특히 動詞가 述語인 文에 스킵의 「のだ」를 使用하면 事態의 成立 以外の 多様な 部分を 焦点으로 만들 수 있다.

- (6) 見たんじゃない。聞いたんだ。 (焦点：語彙)
- (7) 見たんじゃない。見られたんだ。 (焦点：ボイス)
- (8) 見るんじゃない。見てるんだ。 (焦点：アスペクト)
- (9) 見るんじゃない。見たんだ。 (焦点：テンス)

한편, 名詞文의 경우 「のだ」를 使用하지 않은 아래 例文(10)은 名詞의 語義가 焦点이 된다. 따라서 名詞文에 「のではない」를 使用하면 (11)처럼 不自然스러운 文이 되어 버린다.

- (10) 私は学生ではありません。社会人です。
- (11) ?? 私は学生なのではありません。社会人なのです。

단, 名詞文에서도 例文(12)와 같이 述語 以外の 部分を 焦点으로 할 경우에는 「のではない」를 使用할 수 있다. 이것은 「私が学生だ」「彼が学生だ」를 스킵에 넣고,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を 焦点으로 하기 위한 「のだ」이며, 「私が行くのではない。彼が行くのです」와 같은 動詞文의 경우와 같다.

- (12) 私が学生なのではありません。彼が学生なのです。 (強調点은 焦点)

形容詞文은 例文(13)처럼 「のではない」가 自然스럽게 接續할 수 있는 点은 動詞文과 共通되지만, 例文(14)와 같이 「のだ」가 없어도 形容詞의 語義가 焦点이 된다. 따라서 形容詞文에서의 「のだ」는 動詞文과 名詞文의 中間

적인 性質을 갖고 있으며, 또한 語나 文脈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3) 悲しいんじゃありません。悔しいんです。

(14) 寒くありません。暖かいです。

以上の 否定形式의 例文에서 「のだ」를 使用하지 않으면 否定의 焦点은 事態에 대한 成立 자체가 되고 事態의 成立以外의 部分을 焦点으로 할 때에는 「のだ」가 必須이다. 스킵의 「のだ」에 관한 考察에서는 名詞文과의 差異를 明確하게 하고, 「のだ」에 의해 名詞文의 性質이 잘 나타나는 動詞文을 中心으로 다루기로 한다.

스킵의 「のだ」에 있어서 名詞化의 機能을 担当하고 있는 것은 「の」이고, 「だ」는 断定의 助動詞의 役割을 한다. 즉, 스킵의 「のだ」라는 것은 「の」와 「だ」가 結合하여 하나의 助動詞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成分의 元來 機能이 消滅되지 않고 表出되고 있다. 이처럼 스킵의 「のだ」는 構文的인 必要에 의해서 「の」와 「だ」가 각각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지만, 하나의 表現으로 認定해야 하며 그 根拠는 앞서 先行研究에서 본 「ガノ可變」의 結果에 의해 確認하였다.

3.1.1. 名詞文과 對比性

스킵의 「のだ」는 「の」에 接續하는 部分을 名詞化하는 機能을 갖고 있으며, (15)와 같은 「のだ」文은 (16)처럼 名詞文의 述語 部分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15) […………] の + だ。 / か? / ではない。

(16) [名詞] + だ。 / か? / ではない。

스코프의 「のだ」는 名詞文과 비슷한 機能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第2章에서 살펴본 「のだ」의 對比性和 깊은 關連이 있다.

「xはyだ」라는 形式的 名詞文은 x의 屬性으로 y가 適切함이 나타나는 文이다. 그리고 이 경우 y와 對立하는 y'나 y"이면 不適切하다는 것이 一般的인 名詞文의 性質이다. 예를 들어 「私は大学生です」라고 할 경우, 나의 屬性으로 「大学生」가 適切하다는 것이며, 「中学生」나 「高校生」이면 不適切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xはyではない」라고 할 경우는 x의 屬性으로 y가 不適切하다는 것이고 y와 對立하는 y' 라면 適切함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名詞文의 性質은 스코프의 「のだ」 文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否定의 例를 보자.

(17) 悲しいから泣いたんじゃない。

(18) 私が泣いたんじゃない。

例文(17)에서는 스코프의 「のだ」에 의해 「悲しいから泣いた」가 否定되고 이에 對立하는 「嬉しいから泣いた」라면 適切하다는 意味가 内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例文(18)에서는 「私が泣いた」가 否定되고 이에 對立할만한 事態로 「妹が泣いた」등이 提示되는 文이다.

즉, 스코프의 「のだ」의 否定文에서는 名詞文과 같이 「Qのではない」라는 形態에 의해 名詞화된 部分(以下 Q라고 한다)이 不適切함이 提示되고 對立하는 Q' 라면 適切함이 含蓄되어 있다. Q와 對立하는 事態가 어떤 事態인지는 文脈에 따라 다르다.

한편, 스코프의 「のだ」를 使用하지 않은 文은, 예를 들어 「私は泣かなかった」라고 할 경우, 그 事態의 成立이 否定될 뿐이다. 對立하는 다른 事態가 成立되는지는 含蓄되지 않는다. 다음의 例를 보면,

- (19) 私が泣いたんじゃない。妹が泣いたんだ。
- (20)*私が泣いたんじゃない。誰も泣かなかった。
- (21) 私は泣かなかった。妹は泣いた。
- (22) 私は泣かなかった。誰も泣かなかった。

스코프의 「のだ」를 사용한 否定의 경우, 名詞文처럼 對比性を 갖기 때문에 例文(19)처럼 対立하는 事態「妹が泣いた」가 提示되어야 自然스럽지만, 그렇지 않은 例文(20)은 不自然스럽다. 한편 스코프의 「のだ」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事態의 成立에 대해서는 전혀 含意가 없기 때문에 例文(21)과 (22)는 모두 自然스러운 文이 된다.

以上에서 스코프의 「のだ」文은 名詞文과 共通된 性質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話者는 스코프의 「のだ」를 사용함으로써 動詞文 등을 名詞文과 같은 形態로 바꾸고 名詞文과 같은 對比性를 갖게 할 수 있다.

3.1.2. 否定文에서의 스코프의 「のだ」

스코프의 「のだ」는 肯定文, 否定文, 疑問文에서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지 文의 種類別로 分類해서 알아본다. 前接하는 部分을 名詞化하기 위해 必須인 스코프의 「のだ」가 가장 잘 나타나는 否定文부터 考察한다.

먼저 모달리티의 「のだ」가 否定文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달리티 「のだ」의 機能의 하나인 对人的 「のだ」에 「ない」를 접속시켜보면,

- (23) 「咲かないよ、旅行に行ったんだ。」
- (24)?? 「咲かないよ、旅行に行ったんじゃない。」

例文(23)은 「咲がない」의 理由로 「(咲が) 旅行に行った」를 提示하는 모달리티의 「のだ」이다. 「のだ」에 의해 나타나는 모달리티를 否定한 例文(24)는 不自然스럽다. 「旅行に行ったんじゃない」라는 文은 对比性を 갖는 스킵의 「のだ」文이 되어 「旅行に行ったんじゃない。仕事に行ったんだ」와 같은 意味가 되기 때문에 모달리티의 「のだ」文으로서는 不自然스러운 文이 되고 만다.

그리고 모달리티의 「のだ」의 또다른 機能인 对事的 「のだ」에 「ない」를 接続시켜보면,

(25) あっ、雨が降ってるんだ。

(26) ?? あっ、雨が降ってるんじゃない。

例文(25)에서는 Q 「雨が降っている」를 既定의 事態로 把握하는 모달리티의 「のだ」를 使用하고 있다. 이러한 모달리티의 「のだ」를 否定한 例文(26)은 不自然스럽다. 「雨が降ってるんじゃない」라는 文은 「雨が降ってるんじゃない。雪が降ってるんだ」와 같이 对比性を 갖는 스킵의 「のだ」文이라면 自然스럽지만 모달리티의 文으로서는 역시 不自然스럽다.

以上에서 모달리티의 「のだ」는 原則적으로 「のではない」라는 否定의 形態를 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단, 「のではない」가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否定命令」과 「後悔」를 나타내는 두가지 表現으로 例外的인 用法이다.

첫째, 「否定命令」의 경우이다.

(27) 「観光席は撮るな。グランドだけでいい」

徹也は真剣な顔つきで、念を押すように言った。

「いいな。女は撮るんじゃないぞ」

(野田 p.114)

(28) 「さあ、御前達はここで騒ぐんじゃない。あっちへ行っておいで。御客さまだから」と制した。 (夏目漱石『門』)

「のではない」에 의한 「否定命令」은 会話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實際로는 「んじゃない」形態를 취하며, 모달리티의 「のだ」用法的 하나인 「命令」用法과 共通된 性質을 갖고 있다. 例文(27)처럼 일단 命令한 것을 再次命令하는 경우와, 例文(28)처럼 一般常識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行為(「のだ」의 경우는 바람직한 行為)를 나타내고자 할 때 使用된다.

둘째, 「後悔」를 나타내는 「のだった」의 否定形인 「んじゃなかった」이다.

(29) こんなことなら、立つんだった。

(30) 私はこんなところに来るんじゃなかったと、心底後悔したのである。

例文(29)의 「のだった」가 話者 自身이 「立つ」라는 行為를 実行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後悔를 나타내고 있고, 例文(30)의 「のではなかった」는 話者 自身이 「こんなところに来る」라는 行為를 実行한 것에 대한 後悔를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のではない」의 否定의 形式을 취하는 것은 基本的に 스킵프의 「のだ」뿐임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否定文에서의 스킵프의 「のだ」즉, 「のではない」를 使用한 文에서는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이 否定의 焦点이 된다. 例文(31)~(34)에서 強調点은 각각 스킵프의 「のだ」의 焦点을 나타낸다.

(31) 「あたし、悲しいから泣いたんじゃないのよ」

(32) 殴ろうと思って殴ったんじゃない。振り上げた手が当たったんだ。

(33) 彼は病院で生れたんじゃない。

(34) わざとやったんじゃないから、許してくれるだろう。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을 焦点으로 하는 文에서 스킵의 「のだ」가 免除 되기 위해서는 条件이 있다. 아래 例文(35)와 같은 文에서는 스킵의 「のだ」를 使用하지 않아도 「車で」의 部分을 焦点으로 할 수 있다. 24)

(35) 今日ハ車デ来コナカッタノデ、歩イテ帰ラナケレバナラナ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킵의 「のだ」의 免除가 許容되는 것은 焦点이 成分과 動詞와의 通辭的 結合력이 強하고, 무엇과 무엇이 対立하는지가 文脈에 잘 나타나고, 解釈에 誤解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우에 限한다.

예를 들어 例文(36)은 焦点이 되는 部分이 從屬節이고 述語와의 通辭的인 結合력이 弱하기 때문에, 스킵의 「のだ」를 使用하지 않으면 例文(37)처럼 不自然스러운 文이 된다. 이에 비해 例文(39)는 무엇과 무엇의 対立이 問題인지 쉽게 알 수 있고 誤解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のだ」를 使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例文(38)은 例文(39)와 같은 文脈이 아니면 不自然스러운 文이 된다.

(36) 悲しくて泣いてるんじゃない。嬉しくて泣いてるんだ。

(37) *悲しくて泣いていない。嬉しくて泣いてる。

(38)??僕は病院で生れなかった。

(39) 僕は病院で生れなかったから、おふくろさんが大変だったらしい。

그리고 「のだ」를 除去한 아래 例文(40)은 「やらなかった」가 「わざと」라고 解釈이 되어, 스킵의 「のだ」를 使用한 例文(34)와는 전혀 다른 内容을 나타내기 때문에 不適格한 文이 된다.

24) 久野 暉(1973) 『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128

(40) *わざとやらなかったから、許してくれるだろう。

以上과 같이 스킵의 「のだ」를 사용하지 않고 述語 以外の 部分을 否定의 焦点으로 할 수 있는 例는 制限되어 있으며,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을 否定의 焦点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킵의 「のだ」를 사용해야 한다. 特히 否定의 경우는 어느 部分이 焦点인지에 따라 文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스킵의 「のだ」는 免除되기 어렵다.

3.1.3. 疑問文에서의 스킵의 「のだ」

庵功雄 外(2000)²⁵⁾는 「疑問文은 真偽疑問文과 疑問語疑問文이 있고, 의문의 機能에는 두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 文이 올바른지 어떤지를 묻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文이 올바르다는 것을 前提한 後에 그 文의 一部 成分을 特定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疑問文에서 「のだ」가 사용되는 것은 後者の 形態로 制限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前提라는 것은 本稿의 스킵과 같은 機能을 한다.

一般的으로 前提를 갖는 疑問文에는 焦点이 있으며, 반대로 焦点이 있는 疑問文에는 前提가 있다. 따라서 焦点이 있는 疑問文에서 「の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疑問文이 焦点이나 前提를 갖는, 다시말해 「のだ」를 必要로 하는 疑問文에는 크게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첫째, 아래 例文(41)은 疑問文에 疑問語가 包含되어 있는 경우로 「のだ」를 사용하는 典型的인 用法인 疑問語疑問文이다. 例文(42)처럼 「~は【疑問

25) 庵功雄 外(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p.283~285

語] ですか」와 같은 形式을 취하는 疑問文은 疑問語 部分이 質問의 焦点이 되는 形態이고 名詞文과 같은 構造가 되기 때문에 스코프의 「のだ」는 必要 없다.

(41) 田中さんは何を見たのですか。

(42) 田中さんが見たのは何ですか。

그러나 例文(43)처럼 述語 部分의 疑問語에 「のだ」가 使用되면 모달리티의 「のだ」로서의 機能을 하게 된다.

(43) 「誰だ?! あんた誰なんです?!」

따라서 스코프의 「のだ」의 使用이 問題가 되는 것은 例文(44), (45)처럼 述語 以外의 部分에서 疑問語가 使用되는 疑問文이다.

(44) 「だれに聞いたの?」

(44)' 「だれに聞いた?」

(45) 「何処で知り合ったんですか?」

(45)' 「何処で知り合いましたか?」

疑問文인 (44), (45)는 事態의 成立 以外의 部分이 質問의 焦点이기 때문에, 原則적으로 스코프의 「のだ」를 使用해야 한다. 그러나 久野障(1983)²⁶⁾도 指摘했듯이 疑問語가 使用되는 경우에는 質問의 焦点이 明確하기 때문에 例文 (44)', (45)'와 같이 스코프의 「のだ」는 免除되기 쉽다.

26) 久野 障(1983)는 『新日本文法研究』大修館書店 p.140에서 「日本語の否定辞「ナイ」と疑問助詞「カ」のスコープは極めて狭く、通常、その直前の動詞、形容詞、「Xダ/デス」に限られる。このスコープ制限の例外は、「マルチプル、チョイス式」焦点と、疑問詞である。」라고 論하고 있다.

下記の例文(46)과 같은 퀴즈 形態의 質問文 등에서 「のだ」가 使用되지 않는 것을 보아도 疑問語疑問文에서는 스코프의 「のだ」는 免除되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クイズで) 次のオリンピックは、どこで開催されますか。

단, 疑問語 중에서도 例文(47)처럼 「なぜ」나 「どうして」를 사용한 疑問文에서는 「のだ」는 거의 必須이다. 이것은 例文(49)처럼 疑問語疑問文이나 否定文에서 理由의 「から」節 등이 焦点인 경우, 스코프의 「のだ」가 免除되기 어려운 点과 같다.

(47) 「じゃあどうしてウルグアイまでついていくの？」

(48) * 「じゃあどうしてウルグアイまでついていく？」

(49) 「お父さんが好きだから、ついていくの？」

(50) * 「お父さんが好きだから、ついていく？」

둘째, 例文(52), (53)과 같이 疑問文의 一部 成分을 音声적으로 強調하는 경우이다. 文의 成分을 強調한다는 것은 事態에 대한 成立 與否를 묻는 것이 아니고, 事態의 成立을 前提하고 強調된 成分이 適切な가를 묻는 것이 된다.

(51) 田中さんは『タイタニック』を見ましたか。

(52) 田中さんは『タイタニック』を見たのですか。 (初級 p.284)

(53) 「ぼくは別に空いてないけど」

「おれは空いたんだよ」大木は「おれ」のところに力を入れた。

(世界 p.98)

셋째, 疑問文에 必須成分 以外の 成分이 포함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買

う」의 必須成分은 「~が」 「~を」 이기 때문에 例文(54)에는 必要 없지만, 例文(55)의 場所를 나타내는 「あの店で」 는 必須成分이 아니기 때문에 「のだ」가 必要하게 된다. 例文(55)는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を 焦点으로 하고 있다.

(54) 山田：田中さんは時計を買いましたか。

田中：はい、買いました。/いいえ、買いませんでした。

(55) 山田：田中さんは時計をあの店で買ったんですか。

田中：はい、そうです。/いいえ、ちがいます。

그리고 上記 例文(55)처럼 「のだ」가 使用된 真偽疑問文에 대해서는 「はい、そうです」 「いいえ、ちがいます/そうではありません」로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은 「のだ」가 「の+だ」에서 由来한 것으로 準体助詞인 「の」가 「のだ」文을 名詞文에 相当하는 形態로 바꾸기 때문이다.

以上の 考察을 整理하면, 真偽疑問文에서는 事態의 成立 以外の 部分を 質問의 焦点으로 할 경우에는 스킵의 「のだ」가 必要하다. 단, 否定文과 比較하면 스킵 「のだ」는 免除되기 쉽다. 「~は【疑問語】ですか」形態의 疑問語疑問文에는 스킵의 「のだ」는 使用되지 않는다. 그리고 述語 以外の 部分에 疑問語가 使用된 疑問文에서는 스킵의 「のだ」가 使用되지만, 焦点의 位置가 明確하기 때문에 免除되기 쉽다. 단 「なぜ」 「どうして」와 같은 疑問語의 質問文에서는 「のだ」는 거의 必須이다.

3.1.4. 肯定文에서의 스킵의 「のだ」

스킵의 「のだ」는 否定文과 質問文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肯定의 平叙文에서도 使用된다.

(56) お前に聞いているんだ。

(57) 「逃げ出すんじゃなくて、出発するんだよ」 (世界 p.168)

上記 例文(56)에서 「お前に」를 肯定의 焦点으로 하기 위해서는 「のだ」를 使用해서 「お前に聞いている」를 스코프로 할 必要가 있다. 「のだ」를 使用하지 않으면 역시 不自然스러운 文이 된다. 例文(57)에서는 스코프의 「のだ」가 확실하게 나타낸다. 「出発する」를 焦点으로 하고 「逃げ出す」와의 对比를 나타내기 위해 「のだ」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58)과 같은 肯定文에서의 「のだ」는 스코프의 「のだ」의 機能과 모달리티의 「のだ」의 機能을 각각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래 例文(59)와 같은 文脈이면 「頭が」를 焦点으로 하는 스코프의 「のだ」이고, 例文(60)과 같은 文脈이면 「静かにしろ」라는 命令을 하는 理由로 「頭が痛い」를 提示하는 모달리티의 「のだ」이다. (強調点이 焦点)

(58) 頭が痛いんだ。

(59) お腹が痛いんじゃない。頭が痛いんだ。

(60) 静かにしろ。頭が痛いんだ。

또한, 肯定의 形態 「のだ」는 스코프의 「のだ」의 機能과 모달리티의 「のだ」의 機能을 同時에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上記 例文(59)의 「頭が痛いんだ」의 「のだ」는 스코프의 機能뿐만 아니라, 모달리티의 「のだ」로써 P 「話し手が苦しそうな様子である」와 같은 狀況의 事情을 提示하고 있다고 解釈될 수 있기 때문이다.

以上, 스코프의 「のだ」의 機能은 「のだ」에 의해 動詞文 등을 名詞文과

같은 形態로 바꾸고 名詞文과 같은 對比性을 갖게 할 수 있다. 「のではない」라는 否定의 形態를 취하는 것은 스코프의 「のだ」뿐이고, 疑問文에서는 焦点이나 前提를 갖는 경우에 스코프의 「のだ」가 使用된다. 스코프의 「のだ」는 주로 否定文과 疑問文에서 나타나지만, 肯定의 敘述文에도 使用할 수 있다는 點을 考察하였다.

3.2. 모달리티(モダリティ)의 「のだ」

三上章(1972)²⁷⁾는 「のだ」에 대해서 「連体部分「何々スル」를 既成命題로 만들고, 거기에 話者の 主觀的 責任의 準詞部分「ノデアル」를 더해 提出한다」는 것이 「のだ」의 根本的 意味라고 說明하고 있다.

佐治圭三(1986)는 「のだ」文이 갖는 意味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の」自體의 機能과 「のだ」文이 갖는 意味와의 關係를 整理하고 있다.

「の」の前の述語の表わす内容、およびその述語がまとめあげる種々の成分と述語によって描かれることがらを客觀的に固定化するものである。(中略)客體的に固定されたことがらに「だ」「だろう」「か」などが付くことによって、客觀的な狀況・事態にかかわる話し手の判断が表わされることになり、「~のだ」文自體の文構造と文脈とのかかわりにおいて、前文、先行文脈によって描かれる事態への説明、狀況に対する説明、狀況・事態をふまえての判断、説得、勧誘、当為、命令、詠嘆、等の、いろいろの意味が生じるのである。28)

三上章와 佐治圭三 모두 「のだ」文를 「の」에 의해 名詞化된다는 構造에서 「のだ」의 本質을 찾고 있다. 스킵의 「のだ」는 名詞化하고 一部를 焦点으로 만든다는 점과 이에 대한 對比性이 名詞文과 共通된 性質이다. 이에 비해 모달리티의 「のだ」에는 多様な 用法이 있어 모든 「のだ」에 共通된 性質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例文(1), (2)의 「のだ」는 先行文에 대한 「理由」를 나타내고 聽者나 讀者를 必要로 하는 있다. 例文(3), (4)의 「のだ」는 先行하는 狀況

27) 三上 章(1972) 『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p.239

28) 佐治圭三(1986) 「「~のだ」の再説(続)-山口佳也氏・金栄一氏に答えて-」 『日語学習与研究』

35 对外經濟貿易大学 (『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1991所収)

에 대한 話者의 「解釈」을 나타내며 聽者나 讀者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처럼 P와 Q가 意味적으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경우 例文(1), (2)처럼 先行文으로서 表現되는 경우도 있고, 例文(3), (4)와 같이 言語적으로는 表現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例文(5)와 (6)은 先行文이나 狀況과는 關連性이 없이 獨自적으로 使用되는 경우도 있다.

(1) 昨日は学校を休みました。頭が痛かったんだです。

(2) 僕、明日は来ないよ。用事があるんだ。

(3) (朝起きて道路がぬれているのを見て) ゆうべ、雨が降ったんだ。

(4) (一人で泣いている子供を見て) きっと、迷子になったんだ。

(5) さっさと帰るんだ。

(6) こんなに一生懸命勉強したんだ。試験に落ちるはずがないよ。

例文(1)~(6)은 모두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のだ」文으로 이들의 共通된 性質은 「の」에 接続하는 부분 Q에 나타나는 内容を, 話者が 既定의 事態로 把握하거나 提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例文(1)에서는 「頭が痛かった」, 例文(3)에서는 「雨が降った」, 그리고 例文(5)에서는 「帰る」가 각각 話者에 의해 이미 決定되어 있는 事態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Q가 既定의 事態가 아닐 경우에는 「のだ」는 使用하기 어렵다.

(7) * どうしょう……。うん、やっぱり行くんだ。

上記 例文(7)처럼 話者が 發話時の 意志를 그대로 말하는 경우에는 「のだ」의 使用이 不適切하다. 따라서 모달리티의 「のだ」에 폭넓게 適用할 수 있는 性質은 第2章에서 考察한 「既定性」으로 볼 수 있다.

모달리티의 「のだ」는 文法的인 性質을 比較해도 스코프의 「のだ」와는 差異가 있다. 예를 들면 とりたて助詞 「は」는 스코프의 「のだ」에 의해 提示

되는 範圍에서 使用될 수 없지만, 모달리티의 「のだ」文에서는 自然스럽게 使用된다. 스코프의 「のだ」가 使用된 例文(8)에서 스코프에 포함된 조사 「が」를 「は」로 바꾼 例文(9)는 어색한 文이 되지만, 모달리티의 「のだ」를 使用한 (10)과 (11)에서는 「は」가 名詞化된 部分에서 自然스럽게 使用되고 있다.

(8) [夏子が来た] のではない. [春子が来た] のだ.

(9)* [夏子は来た] のではない. [春子は来た] のだ.

(10) 夏子、来ないね。きっと [今日は彼女は忙しい] んだ.

(11) そうか、 [今日は春子は来ない] んだ.

또한 모달리티의 「のだ」는 스코프의 「のだ」와는 달리 例文(12), (13)처럼 名詞 뒤에도 自然스럽게 接續하여 使用된다.

(12) 古文のあからさまって、にわかにとか、ついちょっとって意味なんだよね。(世界 p.138)

(13) 「いつまで降る気なんだ。靴がじめじめして我慢にもはげやしない」
(夏目漱石『門』)

이처럼 모달리티의 「のだ」가 自然스럽게 名詞 뒤에도 接續할 수 있는 것은 모달리티의 「のだ」의 機能이 接續하는 앞부분을 名詞化하는 것 以外에 또 다른 機能을 担当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달리티의 「のだ」文은 名詞文이 아니기 때문에 名詞 뒤에서도 接續할 수 있다. 특히 対人的 모달리티를 担当하는 「のだ」는 例文(14)의 動詞뿐만 아니라 例文(15)와 같이 名詞 뒤에서도 接續이 可能하다. 例文(15)는 「のだ」 없는 名詞文만으로도 情報를 單純히 傳達하는 役割은 할 수 있지만, 「のだ」를 使用함으로써 相対가 認識하지 못한 事態를 認識시키고자 하는 話者の 心

的態度가 表現된 것이다.

(14) 「ご出身は、どちらですか。」

「京都から来たんだです。」

(15) 「京都なんです。」

以上에서 모달리티의 「のだ」의 機能은 文을 名詞文에 準하는 形式으로 바꿈으로써 話者の 心的態度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스코프의 「のだ」와는 달리 모달리티의 「のだ」文은 とりたて助詞「は」와도 自然스럽게 使用되며 名詞 뒤에서도 接續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먼저 이러한 모달리티의 形式을 發話의 相對가 存在하는가에 따라 「對事的 모달리티」와 「對人的 모달리티」로 分類한다. 그리고, 「對事的 모달리티」와 「對人的 모달리티」를 다시 「PはQのだ」라는 代表的인 形式에서 P와 Q의 關係에 따라 關連性的 「のだ」와 非關連性的 「のだ」로 細分하여 考察한다.

(16) そうなんだ、お金を払う立場の人は、こういうことをしてもいいんだ
あ……。(波乱)

(17) 田中君の部屋の明かりが消えている。出掛けたんだ。(中上級p.283)

(18) 本当がいいのよ、こんな素晴らしいものはないのよ。だから絶対にや
りませい！ (波乱)

(19) A:これから飲みに行かない?

B:ごめん。明日早いんだ。(中上級p.282)

對事的 모달리티의 「のだ」는 例文(16), (17)처럼 話者が 發話時에 그때까지 認識하지 못했던 既定의 事態인 「お金を払う立場の人は、こういうことをしてもいい」와 「田中君の部屋の明かりが消えている」로 각각 把握하고 發話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發話 相對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反面, 對人的 模
달리티의 「のだ」는 例文(18), (19)와 같이 話者가 認識하고 있는 「本当にい
い、素晴らしいものはない」와 「明日早い」라는 既定의 事態를 각각 發話 相
對에게 提示하는 경우로, 반드시 相對를 必要로 한다.

3.2.1. 對事的 模달리티의 「のだ」

「のだ」文과 「のだ」가 사용되지 않는 이른바 「現象描写文」과의 差異点
과 共通点を 통해 「のだ」文의 性質을 파악해 본다.

對事的 模달리티의 「のだ」文은 例文(20), (21)처럼 先行文이나 狀況 P에
대하여 그 事情이나 意味로 Q를 把握하는 것이다. 그러나 P와 關連지어 事態
를 把握한 경우는 「のだ」가 없으면 例文(20)', (21)'과 같이 不自然스러운
文이 되고 만다.

(20) 山田さんが来ないなあ。 きっと用事があるんだ。

(20)' 山田さんが来ないなあ。 #きっと用事がある。

(21) (マニュアルを見て) そうか、このスイッチを押すんだ。

(21)' (マニュアルを見て) *そうか、このスイッチを押す。

한편 例文(22)와 같이 予想하지 못한 事態를 갑자기 만났을 경우에는 「現
象描写文」이 사용된다. 그 事態를 既定의 事態로 생각할 余裕가 없기 때문
에 對事的 模달리티의 「のだ」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第2章에서 考察한
바로 既定性에 의한 制約 때문이다. 또한 例文(23)처럼 事態가 話者의 눈앞
에서 成立한 경우에도 現想描写文이 사용된다. 이 역시 既定의 事態가 아니
기 때문에 「のだ」는 사용할 수 없다.

(22) 「あっ! ゴキブリが死んでる」

(22) 「あっ！#ゴキブリが死んでるんだ」

(23) (ぎりぎりで電車に乗り遅れて) あー、間に合わなかった。

(23) (ぎりぎりで電車に乗り遅れて) #あー、間に合わなかったんだ。

对事的 모달리티의 「のだ」文과 「現想描写文」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두 표현에는 분명한 差異가 存在한다. 現想描写文인 (24)는 「雨が降っている」라는 目前의 事態를 있는 그대로 叙述만 하고 있지만, 例文(25)는 話者が 알기 以前부터 이미 「雨が降っている」라는 事態가 存在했음을 話者が 把握하고 있는 것이다. 즉, 認識하지 못했던 既定의 事實을 把握하고 發話한 것이다.

(24) あ、雨が降っている。

(25) あ、雨が降っているんだ。

이와 같이 对事的 모달리티의 「のだ」란 話者が 그때까지 認識하지 못했던 事態 Q를 發話時에 把握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相對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이어서 「PはQのだ」形式에서 P와 Q에 대한 關係에 따라 關連性的의 「のだ」와 非關連性的의 「のだ」로 細分하여 考察한다.

3.2.1.1. 關連性的의 「のだ」

「のだ」의 代表的인 形式은 先行文이나 狀況 P와 「のだ」를 包含한 文 Q와의 關係를 나타내는 例文(26), (27)과 같은 文이다.

(26) 熱があるし、咳が出る。風邪を引いたんだ。

(27) 今日はお先に失礼します。田舎から母が来ているんです。

例文(27)은 「熱と咳」라는 病状으로부터 「風邪を引いた」라고 判断하고 있다. 例文(26)은 「先に失礼する」라는 事態와 関連하여 「母が来ている」라는 事情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28), (29)와 같이 先行文脈이나 状況 P와의 関連性이 없는 「のだ」文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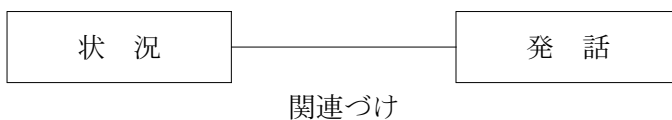
(28) 実は私、結婚するんです。

(29) 話があるの。

例文(28), (29)는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으로 「結婚する」 「話がある」는 伝達하고자 하는 事態를 그대로 나타내는 文이다. 다시 말해 例文(26), (27)과는 달리 発話와 関連性이 있는 先行文이나 状況이 없다.

文은 談話나 文章 속에서 다른 文과 어떤 關係를 갖고 있는 것이 普通이다. 日本語에는 文이 다른 文이나 状況과 関連性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形式이 있다. 이러한 関連性을 明示하는 여러 形式 중에 하나가 「のだ」이다.

庵功雄 外(2000)²⁹⁾는 関連性이란 어떤 発話が 그것을 둘러싼 状況과 関連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のだ」文을 「P. Qのだ。」라는 形態로 다음과 같이 図式化하여 提示하고 있다.



이러한 関連性을 갖는 对事的 「のだ」는 話者が 先行文이나 状況 P를 自身에게 意味있는 形態, 알기 쉬운 形態 Q로 把握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P와 Q의 關係를 크게 区分하면 Q가 P의 事情으로 表現되는 경우와, P의 意味로 表現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例文(30)은 状況 P에서 推論을 거쳐 P의 事情으로 Q를 이끌어내는 例

29) 庵功雄 外(2000)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p.271

이다.

(30) タクシーの窓からちらりと横を見た村井は、駅の周囲がトタンで囲まれていることに気付いた。はりめぐらされた鉄板のむこう側に、鎌首をもたげた黄色いクレーン車の先端が見える。——駅を建て直すんだな。

(野田 p.84)

(31) 思いがけずもたらされた答えを、もう一度胸の中で反芻してみた。あいつら、ぼくに嫉妬してたんだ。いつもアキと一緒にいるもんだから、目の敵にしていたんだ。(世界 p20)

上記 例文(30)의 話者は P 「駅の周囲がトタンで囲まれていて、その中にクレーンが見える」라는 状況에 대해서 話者が Q 「駅を建て直す」로 理解하고 納得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이것을 「納得」의 用法이라고 한다.

例文(31)에서는 話者が 状況 P에 대해 「胸の中で反芻してみた」의 結果, 話者 스스로 納得하는 独白形式의 発言으로 Q 「ぼくに嫉妬してた」「目の敵にしていた」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個別的인 状況 P를 一般化해서 事情 Q를 把握하는 例이다.

(32) (友人が運転しているのを見て) 「あ、あいつ、運転してる」

(33)* 「あ、あいつ、運転する」

(34) 「あ、あいつ、運転するんだ」

上記 例文(32)는 現象描写文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状况을 그대로 表現한 文이다. (32)와 같은 場面에서 発話한 例文(33)은 不適格하지만, 「のだ」를 사용한 (34)文은 自然스럽다. 이것은 P 「今、あいつが運転している」라고 하는 個別的인 状況에서 Q 「あいつは運転する」라는 恒常的인 事態를 把握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P를 一般化해서 把握한 것이며, 이러한 것도 「納得」을 나타내는 関連性的 「のだ」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P의 意味로 Q를 把握하는 例를 보자.

(35) 川崎 「数にすると、どのくらいできるんですか。たとえば一週間に」
俵 「どのくらいかしら、月に平均二十ぐらいは作っているように思
いますが」

川崎 「とすると、年間二百ぐらいは作っちゃうんだ」 (野田 p.85)

(36) 三十代前半という時代、私は若者でなければ、大人でもなかった。若
者界の掟からも、大人界の掟からも自由でいることができたのだ。

(負け犬 p.53)

例文(35)의 話者 川崎는 俵의 발언 P에서 Q 「年間二百ぐらいは作っちゃう」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경우 Q는 P의 成立을 유지시키는 事情이라고 보기 어렵다. P가 어떤 意味를 갖는지를 話者が 생각하고 자신이 알기 쉬운 形態로 把握하고 Q라는 語句로 解釈한 것이다. 이러한 「のだ」의 용법을 「解釈」으로 부르기로 한다.

例文(36)은 P 「私は若者でなければ、大人でもなかった」에 대한 意味를 話者が 알기 쉬운 形態 Q로 「若者界の掟からも、大人界の掟からも自由でいることができた」로 解釈하고 있다.

아래 例文(37), (38)과 같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것을 나타내는 「発見」의 用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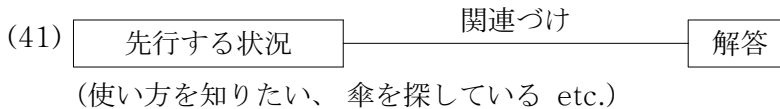
(37) (それまでわからなかった機械の使い方がわかったとき) なんだ、このボタンを押せばいいんだ。(初級 p.273)

(38) (なくしたと思っていた傘を見つけたとき) なんだ、こんなところに
あつたんだ。(初級 p.273)

「発見」은 関連性的의 「のだ」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음 例文(39), (40)도 発見을 나타내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発見과 「のだ」文이 나타내는 発見에는 差異가 있다. 例文(37), (38)과 같은 文에서는 先行文이 存在하지 않지만, 「のだ」가 나타내는 発見은 先行文脈 내에서 未解決이었던 問題에 대한 解答을 発見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例文(37), (38)을 図示하면 (41)과 같다. 이 경우의 「のだ」는 (41)안의 関連性的의 存在를 発見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先行文脈이 없는 例文(39), (40)과 같은 경우에는 「のだ」를 使用할 수 없다.

(39) 窓を開けると、富士山が見えた。

(40) こんなところに傘がある。



이와 같이 関連성을 갖는 对事的 模달리티의 「のだ」에는 話者が P의 事情으로 Q를 把握하는 「納得」의 용법과, P의 意味를 自身에게 있어서 意味있고 알기 쉬운 Q로서 把握하는 「解釈」의 용법이 있다. 그리고 先行하는 状況에 대한 解答을 나타내는 「発見」의 용법까지 살펴보았다.

3.2.1.2. 非関連性的의 「のだ」

非関連性的의 「のだ」라는 것은 Q를 先行文이나 状況 P와 関連없이 使用되는 「のだ」이다. 話者が Q를 既定의 事態로 把握하고 있다는 性質은 「のだ」에서 폭넓게 볼 수 있는 性質인데, 非関連性的의 「のだ」에 있어서는 그 性質

이 더욱 강하게 表現된다. 話者が 把握하기 以前부터 이미 事態 Q가 存在했으며, 그러한 認識하지 못했던 既定의 事實을 把握하고 發話한 것이 非關連性의 「のだ」이다.

典型的인 用法으로는 아래 例文(42)와 같이 現實이 話者の 予想과는 다른 경우에 자주 使用된다. 例文(43)은 話者が 予想한대로 狀況이 展開된 경우이다. 여기에 「のだ」를 사용하면 (44)와 같이 不自然스러운 文이 되고 만다. 「のだ」가 使用되는 경우 반드시 話者が 現實에 反하는 予想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非關連性의 「のだ」는 어떤 경우에도 話자가 Q를 認識하지 못한 既定의 事實로 把握했을 경우에 使用되는 것이다.

(42) 私はこの本を読んで、ブリジョンと自分に共通する部分が非情に多い
ことに驚き、「へーえ、ロンドンにも同類がいるんだあ!」と、素直に
感動しました。 (負け犬p.93)

(43) 思ったとおり、一杯いる。 (野田 p.78)

(44) *思ったとおり、一杯いるんだ。 (同)

그리고 아래 例文(45)~(48)처럼 「なんて」 등으로 始作하는 感歎文은 原則
적으로 「のだ」를 同伴한다.

(45) この電車は何て早く走るんだらう。 (田野村p.80)

(46) この家は何て大きいんだらう。 (同)

(47) ——なんて鈍感だったんだらう。 (野田p.87)

(48) 「ほんとにもう、なんて手のかかる子なのだ!」 (同)

例文 모두가 눈앞의 狀況을 話者 自身이 認識하지 못했던 既定의 事實을 把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48)과 같은 名詞文에서의 「のだ」는 必須는 아니다. 이처럼 「Qのだ」文은 現實에 反하는 놀라움이나 感嘆文에 자주 나타낸

다.

相對의 發話を 그대로 反復하는 경우에도 「のだ」가 使用된다. 例文(49), (50) 모두 話者が 認識하지 못했던 既定의 事態를 把握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9) 「伊達が勝ったって」

「へーえ、伊達が勝ったんだ」

(50) (「伊達が勝った」という新聞記事を読みながら)

「へーえ、伊達が勝ったんだ」

把握이라는 것은 話者が 새로운 Q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以前에 알고 있던 Q를 떠올리며 發話하는 경우도 있다. 例文(51), (52)와 같은 「のだ」의 用法을 「再認識」이라고 한다.

(51) 「そうそう、思い出した。ここにポストがあるんだ」 (野田p.88)

(52) 何度かむなしい努力をしているうちに、身体の奥の方がひやりと痛んだ。それで記憶が戻ってきた。そう。刺されたんだ。 (同)

例文(53)과 (54)의 「のだ」는 「決意」를 나타내는 用法이다. 話者が 이미 決意한 事項을 다시 自己自身에게 다짐하거나, 例文(55)와 같이 獨白形式으로 自己自身을 納得시키기 위해 使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發話의 相對에게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對人的 用法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53) 俺は絶対勝つんだ。 (野田 p.99)

(54) 毎年毎年、「絶対見るんだ」と心に決め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に、ついつい見てしまうのが「北の国から」。 (とつても p.126)

(55) 俺はこんなに一生懸命勉強したんだ。試験に落ちるはずがない。

(中上級p.290)

以上과 같이 非関連성의 对事的 모달리티의 「のだ」는 話者が 認識하지 못했던 Q를 既定의 事態로 把握한 경우에 使用되며, 주로 현실에 反하는 놀라움이나 「感嘆」, 「再認識」의 用法이 있으며, 对事的 用法과 对人的 用法으로도 使用할 수 있는 「決意」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2.2. 对人的 모달리티의 「のだ」

对人的 모달리티의 「のだ」는 話者が 把握하고 있는 事態 Q를 認識하지 못한 相対에게 提示할 때 使用되는 것이며, 반드시 相対를 必要로 한다. 例文(56)은 对人的 모달리티의 「のだ」의 典型的인 例이다.

(56) 「今日は休みます。体調が悪いんです。」

P 「今日は休む」와 Q 「体調が悪い」가 関連성을 갖고, Q를 既定의 事態로 把握하는 것은 对事的 모달리티의 「のだ」와 共通된 性質이다. 그러나 对人的 모달리티의 「のだ」는 여기에 相対가 認識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話者の 相対에 대한 心的態度를 나타내는 것이다.

例文(57)과 (58)의 「のだ」는 각각 P 「田中が来ない」와 「遅くなった」라는 状況에 대한 事情으로 Q 「バスが遅れた」와 関連성을 갖고 있는 点에서 同一한 構造이다. 그러나 「のだ」를 使用해서 P와 Q가 関連성을 갖게 하는 動機는 다르다.

(57) (独白) 田中、来ないなあ。きっとバスが遅れたんだ。

(58) (対話) 遅くなってごめん。バスが遅れたんだ。

独白形式인 (57)에서는 状況 P 「田中が来ない」에 대해서 話者 自身이 推測한 結果로 Q 「バスが遅れた」라는 事情일 것이라고 把握하고 있다. 한편 対話形式인 (58)에서는 話者が 状況 P 「遅くなった」에 대한 理由로 「のだ」를 사용하여 Q 「バスが遅れた」를 相對에게 提示하고 있다. 이와 같이 対人的 모달리티 「のだ」의 경우는 相對의 存在와 關連되어 있으며 相對에게 傳達하기 위해 「のだ」를 使用하는 것이다.

寺村秀夫는 「のだ」에 대해서 「~ノダを誘発するのは、ある状況を認識してそれを理解しよう、あるいは相手に理解させようという気持である」³⁰⁾라고 하고 있다. 「のだ」를 誘發하는 것은 어떤 狀況을 相對에게 理解시키려는 氣分을 나타내는 것이며, 本 論文에서 分類한 対人的 모달리티 「のだ」의 機能이라고 할 수 있다. 平叙文만으로도 相對가 認識하지 못한 것을 傳達하는 機能을 갖지만, 対人的 「のだ」를 使用함으로써 相對를 認識시키고자 하는 話者の 心的狀態가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第2章에서 考察한 「のだ」의 披瀝性を 강하게 엿볼 수 있는 機能이다.

質問文에서 Q가 既定의 事態임을 前提하는 경우에 「のだ」의 使用은 必須이다. 예를 들어 「のだ」를 使用한 例文(59)는 「食べていい」라는 것이 規則으로 정해져 있거나, 相對가 이미 그것을 決定한 狀態라고 話者が 간주할 때의 質問文이다. 「のだ」를 使用하지 않은 例文(60)에서는 既定의 事態로 볼 수 없기 때문에 相對에게 現場에서의 判断을 묻는 質問文이 된다. 따라서 平叙文에서의 「のだ」와는 反對로 質問文에서의 「のだ」는 話者 自身이 認識하지 못한 것을 把握하고자 하는 話者の 心的狀態가 나타나는 것이다.

(59) 「これ、たべてもいいの?」

30) 寺村秀夫(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 くろしお出版 p.309

(60) 「これ、たべてもいい？」

対人的 모달리티의 「のだ」文은 相対가 P를 理解하고 納得할 수 있도록 「説明」하고, P를 要約하거나 具体化해서 「換言」하고, 話者만이 알고 있는 것을 「告白」하고, 相対를 일깨워주는 「教示」적인, 그리고 상대가 認識해주길 바라는 「強調」등의 用法에 자주 使用된다.

이와 같은 対人的 모달리티의 「のだ」는 P와 Q의 意味的 關係에 따라 關連性을 갖는 「のだ」와 關連性이 없는 「のだ」로 下位 分類한다.

3.2.2.1. 關連性的 「のだ」

關連性을 갖는 対人的 모달리티 「のだ」는 相対는 認識하고 있지 않지만 話者는 把握하고 있는 既定의 事態 Q를, 先行文이나 狀況 P의 事情이나 意味로써 提示하고, 그것을 相対에게 認識시키고자 하는 話者의 心的狀態를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話者가 P의 事情으로 Q를 提示하고 있는 例를 보면,

(61) 「咲かないよ、旅行に行ったんだ。」 (野田 p.95)

(62) 昨夜2時間ぐらい停電した。発電所に雷が落ちたのだ。(初級 p.270)

上記 例文(61)의 話者는 P 「咲がない」라는 狀況이 成立한 事情에 대해서 Q 「旅行に行った」로 相対에게 提示하고 있다. 例文(61), (62)는 「のだ」의 機能으로 잘 알려진 「説明」이라는 用法에 해당된다. 話者는 Q가 既定의 事實임을 相対에게 단순히 伝達하고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P라는 事態가 成立되는 事情이나 理由로 Q를 提示함으로써 相対가 P를 理解하고 納得할 수 있도록 「説明」하는 것이다.

「PはQのだ」의 形式이 「Qのだ。P」와 같은 逆順序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例文(63)과 (64)는 그 関連性を 나타내는 文이 「のだ」文 뒤에 位置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이 用法을 「予告」라고 한다. 「のだ」는 基本的に 先行하는 文과의 関連性を 나타내기 때문에 「のだ」를 포함함 文이 먼저 나타나면 聽者나 讀者는 그 文과 関連되는 対象을 알고자 하는 関心이 높아져서 뒤따르는 文에 注意를 기울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予告」의 効果라고 할 수 있다. 「予告」는 話者가 相對에게 어떤 폐를 끼칠만한 提議나 付託을 할 때 듣는 이의 心理的 負擔을 輕減시키는 役割을 한다.

(63) 先生、お話があるんです。お部屋に伺っ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64) A : 実は私田中さんと結婚するんです。

B : それはおめでとう。

A : それで、先生に仲人を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中上級 p.288)

以上은 関連性的 「のだ」文에서 P의 事情으로 Q를 提示하는 것으로 「説明」 「予告」의 用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話者가 P의 意味로 Q를 提示하는 것으로 「換言」의 用法이 있다.

(65) 彼女には夫がおり、彼もまた教師で、彼女と同じ時期に四小で教えていた。つまり、二人は昔、四小で職場結婚をしたのだ。(野田p.96)

(66) 寝る事は寝るが、気が楽で寝られるんじゃない。つまり疲れるからよく寝るんだらう。(夏目漱石『門』)

(67) 彼女は日本人の父親とは日本語で、アメリカ人の母親とは英語で話す。彼女はバイリンガルなのである。(初級p.273)

(68) 単純な手仕事で、頭は使わない。だからわたしは別のことを考えていた。人を殺せたらどんなにいいだらうと思っていたのだ。(野田p.97)

例文(65)는 P가 結局 어떤 意味를 갖는지를 Q 「二人は昔、四小で職場結婚をした」라는 語句로 提示하고 있다. 이처럼 例文(65)~(67)은 Q를 提示함으로써 相對가 P의 意味를 잘 理解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のだ」文의 첫머리에 「結局、要するに、つまり、一言でいえば、換言するば、言い換えれば、簡単にいえば」 등의 語句가 자주 使用된다. 모두 P를 相對가 알기 쉬운 形態인 Q로 提示하는 語句이다. 例文(68)에서는 P 「別のことを考えていた」를 具體적으로 나타낸 것이 Q 「人を殺せたらどんなにいいだろうと思っていた」이다.

아래 例文(69)처럼, 複數의 文이 連結되는 마지막에, 그때까지의 內容을 整理하는데에 使用되는 「のだ」도 P의 意味를 提示하는 용법이다. 주로 文章體에서 많이 使用된다.

(69) その時、愛される負け犬とそうでない負け犬の差が、出てくることでしょう。どれほどの得を社会に、そして周囲に人に与えられるかによって、幸福度は異なるに違いない。負け犬社会にも、淘汰の波はやってくるのです。 (負け犬 p.266)

以上과 같이, 關連性을 갖는 對人的 模態의 「のだ」에는 多樣한 用法이 있다. 우선 P의 事情으로 Q를 提示하는 「のだ」에는 「説明」「予告」의 用法이 있으며, P의 意味로 Q를 提示하는 「のだ」에는 先行文 P를 要約 또는 具體적인 內容을 나타내는 「換言」의 用法이 있다. 이러한 機能에는 모두 相對에게 P를 理解시키기 위해서 그 事情이나 意味 Q를 相對에게 意味있고 알기 쉬운 形態로 提示하고 그것을 認識시키고자 하는 話者의 心的態度가 나타나 있다.

3.2.2.2. 非關連性的 「のだ」

非關連性的 「のだ」는 關連性的 「のだ」에 비해 특히 Q가 既定의 事態임

을 나타내고자 할 때 使用되며, 告白이나 強調 등의 뉘앙스를 띄는 경우가 많다.

田野村忠温(2002)³¹는 「P와 Q의 意味的인 關係에 대해서 생각할 때, 注意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具體的인 事項 P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例에 까지 前後의 文脈 안에서 無理하게 P를 찾으려는 誤謬를 犯하지 않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70)きのう話し合ったんですよ。でも、結局、結論は出ませんでした。

上記 例文(70)에서 「きのう~」文은 形態上 다음 文의 前置의 形式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のだ」文은 P와 Q의 意味的인 關係上 「話し合った」라는 것(Q)이 「結論は出なかった」라는 것(P)에 대한 前置의 關係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文은 具體的인 P없이 使用되는 것으로 非關連性의 「のだ」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先行文이나 狀況과 關係없이 使用되는 非關連性의 用法은 話者의 内心이나 經驗, 個人的인 事情과 같은 相對가 알기 어려운 種類의 事項을 告白하는 기분으로 表明할 때 자주 使用된다. 이것은 이미 第3章에서 考察한 「のだ」의 披瀝性에 의한 것으로 아래의 例文(71), (72)의 「のだ」는 「本当に」「大切なのは」와 같은 表現과 함께 話者의 内心이나 事情을 「強調」하고 있고, 例文(73)과 (74)는 「ほんとは」「実は」와 같은 表現을 내세우고 文末에 「のだ」를 誘導하는 形態를 취하고 「告白」적이다. 이러한 「のだ」文은 非「のだ」文보다 積極的으로 事態를 披瀝하는 것이다.

(71) 本当に私は知らないんです。

(72) 大切なのは作品に接する時の気持ちだと思うんです。

(73) あたしほんとは好きなんだ、野球部の太田君。

31) 田野村忠温(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書院(復刊) p.21

(74) 実は、私にも同じような経験があるんです。

따라서 「のだ」文은 相對에게 積極적으로 알아주길 바라는 擬聲으로 어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告白하는 語調나 相對에게 呼訴하는 듯한 語調를 느끼게 한다.

疑問文에서는 例文(75), (76)과 같이 「のだ」는 話者が 쉽게 알 수 없는 相對의 既定의 内心이나 體驗, 個人的인 事情 등을 물을 때 자주 使用된다.

(75) お酒はよく召し上がるんですか?

(76) おたくのご主人はどちらにお勤めなんですか?

또한 例文(77)~(80)과 같이 相對가 알고 있는 事項을 再次 認識시켜 相對에 대한 激励나 非難 등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77) こんなに一生懸命勉強したんだ。試験に落ちるはずがないよ。

(78) 君は大学生なんだ。もっと勉強しなさい。 (中上級p.290)

(79) いいかいアオイ、きみはアンジェラにつきあう必要なんかないんだ。
(冷静 p.121)

(80) 「そんな大金、いったいなんに使うんだ」 (世界 p.159)

그리고 関連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命令」의 用法도 있다. 例文(81)~(83)은 命令形과 같은 直接的인 表現이기 때문에 손아랫사람만을 相對로 使用할 수 있다. 命令의 「のだ」는 話者が 생각하는 行動을 相對에서 提示하고, 그 実行을 促求한다는 点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のだ」와는 區別되지만, 역시 命令의 「のだ」에도 既定의 事實을 提示하고 있다는 点에서 共通된다.

(81) さっさと行くんだ。 (初級 p.278)

(82) いつもだったらサトルがやる。でも今回はおまえもやるんだ。

(ビューティ p.18)

(83) 今月末にトップスタイリストの試験をする。それまでに『ホットリップ』の顔になるような新しいデザイン、考えるんだ。(ビューティ p.40)

田野村忠温(2002)도 命令의 「のだ」은 「聞き手が話し手の要求をすでに承知している状況こそ、「のだ」が命令に用いられやすいことになる」³²⁾라고指摘하고 있다. 아래 例文(84)에서도 「働け」라는 命令 後に 「働くんだ」라는 形態의 命令이 이어지고 있다. 逆順으로 表現하면 例文(85)와 같이 不自然스러운 文이 되고 만다. 非関連性的의 「のだ」도 Q가 既定의 事態임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에, 命令의 「のだ」도 例文(84)처럼 이미 直前に 相対에게 言及한 것을 재차 言及할 경우가 많다.

(84) 「働け働け、働くんだ」

(85)?? 「働くんだ。働け働け。」

또한 例文(86), (87)과 같이 一般常識을 알아듣도록 伝達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Q의 実行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話者만의 判断이 아니고, 一般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のだ」에 의해 提示하는 것으로 「教示」적인 用法이다.

(86) 「ジロー君、車に気を付けるのよ」 (野田 p.101)

(87) 「良識ある行動を心がけるんだぞ」と祖父は言った。 (世界 p.162)

以上, 非関連性的의 对人的 모달리티 「のだ」에는 話者の 内心이나 経験, 個人的인 事情과 같은 相対가 알기 어려운 種類의 既定의 事態 Q를 「告白」하거나 「強調」하는 用法과 「命令」 「教示」적인 用法이 있다는 것을 考察하였다.

32) 田野村忠温(2002) 『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和泉書院(復刊) p.25

第4章 結 論

現代 日本語에 있어서 文章이나 談話에서 자주 사용되는 文末表現 形式의 하나로 「のだ」가 있다. 「のだ」를 隨伴하는 文의 特徵은 名詞化의 機能을 갖고, 이른바 準體助詞 「の」에 「だ」가 結合하여 助動詞化된 것이다. 「のだ」文의 構造的 特性을 把握하기 위해서 가장 重要的 것은 「のだ」가 文의 構造를 名詞文에 準하는 形態로 바꾼다는 點이다. 本 論文에서는 「PはQのだ」라는 基本形式에서 「のだ」文의 意味特性과 使用條件을 考察하고, 「のだ」의 機能을 스코프의 「のだ」와 모달리티의 「のだ」로 区分하였다.

먼저 「のだ」의 意味的인 特性을 承前性, 既定性, 披瀝性, 對比性으로 分類하여 「のだ」의 使用條件을 提示하였다.

첫째, 「のだ」를 包含한 文은 先行하는 言語적인 文脈이나 非言語적인 狀況과의 結合에 의해서 使用된다. 따라서 突發적으로 發生한 事態를 言語化하는 경우에는 使用할 수 없다. 이것을 「のだ」의 「承前性」이라고 한다.

둘째, 「既定性」이라는 것은 「のだ」로 提示된 命題가 話者에 의해 이미 成立된 事態로 判斷되는 性質을 말한다. 既定性은 實際로 成立된 事實뿐만 아니라 話者가 可能性으로 想定할 수 있는 경우도 包含된다.

셋째, 「のだ」文은 相對에게 積極적으로 들어주고 알아주길 바라는 紐앙스로 어필한다. 그래서 告白하는 語調나 呼訴하는 듯한 語調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性質을 「のだ」의 「披瀝性」이라고 하고, 非「のだ」文보다 積極적으로 事態를 披瀝한다.

넷째, 「のだ」는 하나의 可能性을 對比되는 다른 可能性과 區別하여 問題化하는 경우에 使用된다. 「어떤 命題에 대해 그것은 바로 Q이다」라고 表現하는 것은, 곧 그것은 Q이지 Q'나 Q"가 아니라는 것을 含意하는 것이다. 이것을 「のだ」의 「對比性」이라고 한다. 이 對比性은 「のではない」를 隨伴하는 否定文에서 특히 강한 效果를 發揮한다.

本論文에서는「のだ」의 機能에 대해 構文的인 理由에서 名詞化할 必要가 있어「のだ」를 使用하는 스코프의「のだ」와「の」앞 部分을 名詞化하고「説明」등의 意味를 갖게 하는 模態리티의「のだ」로 分類하였다.

스코프의「のだ」는 動詞文 등을 名詞文의 形態로 바꿈으로써 名詞文과 같은 性質을 갖게 된다. 따라서 스코프의「のだ」는 前接 部分을 名詞化하기 위한 必須의「のだ」이며, 話者が 表現하고자 하는 部分을 焦點化하기 위해 使用된다. 또, 對比性을 갖고 焦點의 要素와 對立하는 要素를 排除함으로써 그 事態를 적절히 나타낼 수가 있다. 이처럼, 스코프의「のだ」文은 名詞化한 部分의 一部를 焦點으로 한다는 點과 名詞文과 같은 對比性을 갖는다는 點이 重要한 性質이다.

「のではない」와 같은 否定의 形式을 취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스코프의「のだ」뿐이다. 단, 例外的으로 否定命令을 나타내는「んじゃない」와 後悔를 나타내는「んじゃなかった」만이 否定形式의 模態리티의「のだ」이다. 疑問文에서는 焦點이나 前提를 갖는 경우에 스코프의「のだ」가 使用된다. 이와 같이 스코프의「のだ」는 주로 否定文과 疑問文에서 나타나지만, 肯定의 敘述文에도 使用할 수 있다는 點을 考察하였다.

모달리티의「のだ」는 文을 名詞文에 準하는 形態로 바꿈으로서 이미 成立한 事態로 提示하고 話者の 心的 態度를 나타내는 것이다. 모달리티의「のだ」는 發話 相對의 有無에 따라 對事的 模態리티와 對人的 模態리티로 分類하고, 「Qのだ」는 先行文脈이나 狀況 P와의 關連性을 重視하여 다시 關連性의「のだ」와 非關連性의「のだ」로 細分하였다. 關連性의「のだ」는 先行文脈이나 狀況 P의 事情, 意味로서 Q를 把握하거나 提示할 때 使用된다. 非關連性의「のだ」는 先行文이나 狀況과는 關連없이 단지 Q를 既定의 事態로 把握하거나 提示할 때 使用된다.

對事的 模態리티의「のだ」에는 P와 Q의 關連性에 의해 나타나는「納得」「解釈」「發見」의 用法과, 非關連性으로「感嘆」「再認識」「決意」등의 用法을 살펴보았다. 對人的 模態리티의「のだ」에는 P와 Q의 關連性에 의해

나타나는 用法으로 「説明」 「予告」 「換言」 과, 非関連性的 用法으로 「告白」 「強調」 「命令」 「教示」 등을 각각 考察하였다.

하나의 表現에서 「のではないのだ」 와 같이 「のだ」 가 두 번 使用되는 경우도 있다. 例文(2)가 그러한 例이다.

(1) A: 「私に聞いているの?」

B: 「いや、お前に聞いているんじゃない」

(2) A: 「私に聞いているの?」

B: 「いや、お前に聞いているんじゃないんだ」

上記 例文(1)B에서는 「お前に」 를 否定의 焦点으로 하기 위해 스킵프의 「のだ」 가 使用되고 있다. 그리고 (2)B에서는 (1)B와 같이 스킵프의 「のだ」 를 使用해서 「お前に」 를 否定의 焦点로 한 다음, A가 「화를 내는 듯한 語調로 묻는」 狀況에 대해 B는 이와 関連하여 A에게 「화내지 말라」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다」 라는 등의 ニュアンス를 伝達하기 위해 모달리티의 「のだ」 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のではないのだ」 文을 통해 「のだ」 의 두 機能에 대한 役割과 이에 대한 説明이 더욱 明確해진다. 그러나 스킵프의 「のだ」 와 모달리티의 「のだ」 의 두 機能이 항상 分離되어 使用되는 것은 아니며 각 機能은 連続性を 갖는다고 볼 수 있다.

以上 「のだ」 를 文末表現의 하나로 限定하여 意味的인 特性和 使用条件, 그리고 스킵프와 모달리티라는 機能的인 面에서 考察하고 整理해 보았다. 「のだ」 는 文末에서뿐만 아니라 「のでなく(て)」 「ので」 「のであれば」 「のでは」 「のだから」 「の(だろう)か、……」 등 文中의 여러 形態로 使用되고 있다. 이러한 從屬節에서 나타나는 「のだ」 의 多様な 形式에 대해서는 向後 研究課題로 삼고자 한다.

<参考文献>

<用例出典>

- 江国香織(2001)『冷静と情熱のあいだ』 角川文庫 (冷静)
- 北川悦吏子(2002)『ビューティフルライフ』 角川文庫 (ビューティ)
- 柴門ふみ(2002)『とっても愛ブーム』 角川文庫 (とっても)
- 林真理子(2004)『ドラマティックなひと波乱』 文芸文庫 (波乱)
- 片山恭一(2006)『世界の中心で、愛をさけぶ』 小学館文庫 (世界)
- 酒井順子(2006)『負け犬の遠吠え』 講談社文庫 (負け犬)
- 庵功雄 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
エーネットワーク (初級)
- 庵功雄 外(2001)『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
エーネットワーク (中上級)
- 夏目漱石『門』 インターネット青空文庫 (www.aozora.gr.jp) (門)

<単行本>

- 野田春美(1997)『「の(だ)」の機能』 くろしお出版
- 田野村忠温(2002)『現代日本語の文法 I 「のだ」の意味と用法』 和泉書院(復刊)
- 庵功雄 外(2000)『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
エーネットワーク
- 庵功雄 外(2001)『中上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
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庵功雄(2001)『新しい日本語学入門』 ス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 久野暲(1973)『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久野暲(1983)『新日本文法研究』 大修館書店
- 佐治圭三(1991)『日本語の文法研究』 ひつじ書房

益岡隆志(1991)『モダリティの文法』くろしお出版
益岡隆志, 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くろしお出版
寺村秀夫(1984)『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橋本進吉(1948)『国語法研究』岩波書店
三上章(1980)『現代語法序説』くろしお出版
松下大三郎(1930)『標準日本口語法』中文館書店(復刊 勉誠社 1977)
三尾砂(1948)『國語法文章論』三省堂

<辞典類>

日本語教育学会編(2005)『新版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論文>

方村恒雄(1980)「『のである』の用法」『解釈』第26巻第1号
佐治圭三(1986)「「~のだ」再説(続)―山口佳也氏・金栄一氏に答えて―」『日語学習
与研究』35 対外経済貿易大学(『日本語の文法の研究』ひつじ書房1991所収)
小金丸(現野田)春美(1993)「ムードの「のだ」とスコープの「の(だ)」」『日本
語学』vol.9 明治書院
林大(1964)「ダとナノダ」森岡健二ほか(編)『口座現代語 6 口語文法の問題
点』明治書院
庵功雄(2000)「教育文法に関する覚え書き―スコープの「のだ」を例として
―」『一橋大学留学生センター紀要』3
神田靖子(2001)「語用論的機能からみた二つの「のだ」」『同志社大学留学生
別科』創刊号
三上章(1972)『現代語法序説 シンタクスの試み』刀江書院(復刊くろしお出
版,[1953])
吉田茂晃(1988)「ノダ形式の構造と表現効果」『国文論叢』15
菊地康人(2000)「「~『のだ(んです)』の本質」~」『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

紀要』10 東京大学留学生センター

名嶋義直(2004)「『ノダの意味・機能』に関する『学習者のメタ文法認知』－
東北大学留学生における予備調査の結果から－」『日本語教育論集』13

李朱利愛(2000)「『のだ』の機能分析と研究－談話分析を中心に－」中央大學
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劉明洙(2002)「日本語의 文末表現『のだ』에 관한 一考察－意味・機能을 中
心으로－」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崔眞姬(2005)「『のだ』の文法化と機能別必須性に関する研究」新戸学院大学
大学院 博士学位論文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日語教育	학 번	20048156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김 재 영 한문: 金 栽 穎 영문: Kim Jae-young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각화금호타운 3동 1408호				
연락처	(062)454-2580, (011)638-7997 E-MAIL: fureai@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文末表現「のだ」에 關한 研究 - 意味와 機能 分析을 中心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Sentence-end Expression "Noda" -Mainly the Analysis of Meaning and Func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 년 8 월 일

저작자 : 김 재 영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